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제273호【루계 제24686호】주체103(2014)년 9월 30일(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몽골 국가대회의 부의장과 몽골 사회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몽골 국가대회의 부의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몽골 국가대회의 대표단 단장인 르. 곤치그도르쥐 부의장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전달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몽골 사회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몽골 사회민주녀성동맹대표단 단장인 쯔. 초그졸마위원장이 29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

10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 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자력갱생연구소조, 도이췰란드반제연단에서 독보회, 토론회, 영화감상회가 20일과 23일에 진행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주체사상탑》, 《강성대국의 불보라》를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나이제리아자력갱생연구소조 위원장대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독보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고 줄기차게 전진하여온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릴것이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키신 조선로동당은 력사에 승리만을 아로새기며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대렬의 순결성을 고수하시고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당으로 더욱 굳건히 다지시였다.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이 있어 조선은 오늘의 복잡한 국제정세속에서도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할것이다.

도이췰란드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나공화국 대통령, 감비아공화국 대통령,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 마로끄왕국 국왕, 말라위공화국 대통령, 모리따니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 바레인왕국 국왕,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대통령, 산토메 프린시페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수단공화국 대통령,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에스빠냐왕국 국왕, 까자흐스딴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또한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공산당(련합) 중앙위원회 위원장, 네팔로동자농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베바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 총비서, 말레이시아인민운동당 총서기, 먄마련맹련대성발전당 총비서, 몽골민족민주당 위원장, 몽골인민당 총비서, 수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수리아공산당(통일) 총비서, 수리아아랍민주동맹당 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자운동 총비서, 캄보쟈푸씬쌔크당 위원장, 캄보쟈의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팔레스티나해방민주주의전선 총비서,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비서,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 인도네시아다양성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위원장과 총서기,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총비서,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선택당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공산당《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씨야민족구국전선 위원장,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마쟈르로동당 위원장, 벌가리아사회주의당 민족리사회 위원장,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대리, 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새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와 국제비서,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겸 국제비서, 총비서,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총비서,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이딸리아 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세네갈사회당 총비서, 에짚트민족진보통일련합당 총비서, 에짚트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 도미니까통일된 좌익운동 총비서, 메히꼬사회주의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카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제1비서,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뻬루민족독립운동 위원장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또한 쿠웨이트국가 추장계승자, 내각 수상, 까타르국가 내각 수상, 바베이도즈 수상,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에스빠냐인민공산당 국제관계비서, 가나민족민주대회 부총비서, 에짚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미국사회로동당 전국위원회 성원, 김일성김정일기금 공동리사장, 로씨야 이고리 모이쎄에브명칭 국립아까데미야먼속무용단 지배인, 로씨야 21세기판현악단 단장, 유엔사무총장,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총국장, 세계식량계획집행국장,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조정서기, 뿔럭불가담학생청년조직 총서기,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서기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로씨야편방 하바롭스크변강 장관, 하바롭스크시장을 비롯하여 중국, 로씨야, 네팔, 레바논, 말레이시아, 먄마, 몽골, 방글라데슈, 수리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캄보쟈, 쿠웨이트, 타이, 파키스탄, 까자흐스딴, 끼르기즈스딴, 아랍추장국, 오만, 이란, 인도네시아, 인디아, 일본, 노르웨이, 단마르크, 도이췰란드, 로므니아, 벌가리아, 벨라루씨, 스위스, 스웨리예, 체스꼬, 프랑스, 핀란드, 뿔스까,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영국, 이슬란드, 이딸리아, 기네, 나이제리아, 리비아, 베닌, 세네갈, 민주꽁고, 뚜니지, 알제리, 앙골라, 우간다, 에짚트, 에티오피아, 메히꼬, 브라질, 꼴롬비아, 빼루, 에꽈도르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켜오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선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달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불패의 강국으로 존엄높은 조선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자

조선속도, 제2의 희천정신창조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

희천9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평양시려단에서 공사량의 85% 수행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이 더욱 활기있게 벌어지는 속에 희천9호발전소건설장에서 격동적인 소식이 울려퍼지였다.

평양시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지난 9월 16일까지 9호발전소공사량의 85% 계선을 돌파함으로써 당앞에 결의다진 올해공사목표를 석달이상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결과 기한전에 발전소건설완공의 포성을 자랑스럽게 울릴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희천9호발전소건설장에 펼쳐진 경이적인 이 현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파감히 벌려온 새로운 조선속도, 제2의 희천정신창조투쟁의 거대한 생활력과 견인력의 뚜렷한 시위이며 김정일애국주의의 기치높이 청천강을 하루빨리 전기강, 보배강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산악같이 일떠선 려단의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결사관철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열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중요건설대상의 첫자리에 내세워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내밀도록 온갖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발전소건설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현장지휘부에서 내세운 올해말까지의 85% 공사과제수행을 위하여 년초부터 기본건설대상인 언제건설을 본때있게 다그쳐왔다.

려단아래 각 대대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9월에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에 높은 공사실적으로 보답할 일념안고 좌안언제공사를 위한 가물막이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한겨울철에 기승을 부리며 광란하는 사나운 청천강의 흐름을 돌려 좌안지대 8개의 수문기둥경간에 대한 언제공사를 단번에 내밀기 위한 투쟁은 대단히 어려웠다. 하지만 려단의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거석채취와 토량운반을 위한 함마전, 맞들이전, 질통전을 힘차게 벌리였다. 이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불가능이란 없다는 신념과 배짱을 안고 먼거리얼음길을 달리며 수십개의 중량이 큰 대형부재들을 운반해다가 물귤을 막았으며 그 부재들이 사나운 물살에 휘말려들게 되자 또다시 여러t의 막돌을 적재한 쇠그물망을 만들어 공사에 받아들임으로써 지난 1월말까지 가물막이를 끝내고 양수전투, 굴착공사를 다그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당정책관철을 위한 길에서 혁신의 기수가 되려는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은 좌안언제굴착공사에 뒤이은 기초 및 보강판과 무넘이구간, 수문기둥콩크리트치기때에 절정을 이루었다.

백종원, 최용수, 안성일동무를 비롯한 려단의 지휘관들은 만경대구역대대를 비롯한 일부 력량을 발전기실굴착공사에 돌리고 각 대대력량을 좌안언제건설에 총집중시킨데 이어 우안언제공사때의 경험을 살려 광차운반계통에 의한 버럭처리와 혼합물운반작전을 통이 크게 펼치고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공사계절에 들어서면서 불과 20일동안에 근 7 000㎥의 기초굴착공사가 추진되고 첫 콩크리트치기에 진입한지 열흘만에 1만㎥의 기초콩크리트치기과제가 수행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중구역, 보통강구역과 대동강구역, 력포구역, 통성구역대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기초콩크리트치기에서 이룩한 성과에 이어 좌안의 언제수문기둥공사현장들을 차지하고 장마철전으로 콩크리트치기를 와닥닥 해제끼기 위한 전격전, 립체전을 벌리였다. 이들의 눈부신 투쟁에 의하여 8개 수문기둥의 콩크리트치기가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기념일을 맞는 지난 6월 4일까지 성과적으로 끝나고 련이어 한개의 무게가 20여t에 달하는 수십개의 다리보와 100여개의 상판부재가 제작되였다.

력포구역과 대성구역대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돌격대원들은 육중한 다리보를 하루최고 9개나 조립하고 상판부재조립도 단숨에 해제껴 지난 7월초까지 좌안의 8개 언제수문기둥에 대한 다리보와 상판부재조립공사를 전부 끝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모란봉구역, 동대원구역, 순안구역을 비롯한 여러 단위 돌격대원들도 기세를 늦추지 않고 발전기실하부구조물공사실적을 끊임없이 높이였으며 보통강구역과 형제산구역대대 전투원들은 발전기실하부구조물과 좌안비일류부언제공사에서 높은 공사속도를 창조함으로써 려단앞에 맡겨진 년간공사과제를 3개월반이나 앞당겨 끝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공사기간 현장지휘부 일군들은 희천9호발전소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도록 화선식정치사업과 함께 보장사업을 적극 앞세워 려단아래 모든 단위들에서 련대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지휘부의 정치일군들은 사상의 위력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려단에 나가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 건설장의 분위기가 애국충정의 열도로 끓어번지도록 직관선전, 경제선동, 가사창작열의를 한층 북돋아주었으며 뜻깊은 계기마다 화선식경제선동의 불길속에 려단이 본보기단위로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집단적혁신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였다.

려단의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지난 9월 21일 중요대상인 발전기실하부구조물공사를 와닥닥 다그쳐 끝낸 기세드높이 발전기실건물축조공사와 남은 공사과제들을 짧은 기간에 결속할 열의밀에 계속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류기풍

동발나무생산에서 혁신

강계갱목생산사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림업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통나무를 비롯한 림산물을 생산보장하는 채취공업의 한 부문입니다.》

강계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탄광들에 더 많은 동발나무를 보내주기 위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지난 24일까지 9월 동발나무생산계획을 110%로 넘쳐 수행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동발나무채벌, 사이나르기, 마감나르기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의 일군들은 작업소들에 내려가 로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발나무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동발나무생산에서 걸린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주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있다. 9월에만도 사업소에서는 수백m의 쇠바줄, 많은 량의 연유, 기계톱을 비롯한 수십점의 설비와 부속품들을 작업소들에 보내주었다.

동발나무생산전투에서 황포, 송학작업소가 사업소적으로 앞서나가고있다.

황포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불리한 림지조건에 맞게 륜전기재와 로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매일 사이나르기계획을 130%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특히 운전수들인 김창도, 리호연동무들은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뜨락또르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동발나무나르기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송학작업소에서도 생산소대별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며 사이나르기에서 눈부신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작업소의 산판마다에서 로동자들은 한㎥의 동발나무라도 더 끌어내리기 위해 서로 돕고이끌면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작업소들에서 사이나르기성과가 확대되는데 맞게 산지토장들에 쌓아놓은 동발나무수량을 매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철도역과 멀고가까운 작업소들의 특성에 맞게 집중수송, 편대수송을 잘 조직하여 마감나르기실적을 높이고있다. 작업소들에서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산지나무터들에서 자동차들의 머무름시간을 훨씬 줄이고있다.

사업소적인 마감나르기전투에서 공무운수직장의 운전사들이 로력적위훈을 떨치고있다. 공훈운전사 박길웅동무와 김길남, 최혁철동무를 비롯한 운전사들은 험한 백수십리길을 달리며 여러 철도역들에 많은 동발나무를 실어내고있다. 공무운수직장의 수리작업반원들은 튼튼히 꾸려놓은 물질기술적토대에 의거하여 들어오는 자동차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책임적으로 하여 동발나무수송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하고있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년간 동발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실리가 큰 쇠그물콩크리트고기배무이에 성공

함경남도수산관리국 서호수산사업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는 최고사령관명령을 결사관철하여 뜰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방법으로 뜰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포구마다에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며 바다가양식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함경남도수산관리국 서호수산사업소에서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피끓는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힘찬 투쟁을 벌려 물고기잡이에서 실리가 큰 쇠그물콩크리트고기배를 새롭게 건조하였다.

쇠그물콩크리트고기배는 말그대로 철판이나 목재를 적게 쓰면서 쇠그물에 세멘트몰탈을 미장하는 형식으로 만든 배이다.

이렇게 배를 무으면 강재를 많이 절약할뿐아니라 철배나 나무배처럼 녹이 쓸거나 부패되는 현상이 전혀 없다.

철배나 나무배는 한해에 두번씩 배올림대에 올려놓고 도장재료를 칠해야 하지만 콩크리트배는 도장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기관고장만 없으면 별로 수리할 일이 없기때문에 오래동안 물고기잡이를 할수 있다.

경제적효과성도 대단하다. 철배에 비하여 원가가 1/3밖에 되지 않으며 건조기일도 매우 빠르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서호수산사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무조건 결사관철할 의지를 안고 철배에 못지 않게 그 세기를 높이고 더 많은 고기배를 무을수 있는 쇠그물콩크리트배무이를 진행할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지배인 손현남동무를 비롯하여 사업소의 일군들은 쇠그물콩크리트배무이가 단순히 고기배를 건조하는 기술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자각을 안고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발휘하며 종업원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분공장장 김명철, 직장장 리전천동무들은 전투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배무이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을 찾아쥐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면서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갔다.

신포고기배설계연구소의 설계원들은 쇠그물콩크리트배무이에 필요한 참고자료들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집체적협의와 토론을 거듭하면서 빠른 기간에 기초설계안작성을 전부 끝내였으며 실장 주룡동무는 배무이전투 전기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즉시 즉시 대책하였다.

국가과학원 건축공학분원 건설재료연구소의 과학자들도 쇠그물콩크리트배무이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현장에 달려나와 배무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콩크리트강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돌파구를 열어제끼였을뿐아니라 배무이공정별시공지도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쇠그물콩크리트배무이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울 불같은 일념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함경남도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해 쇠그물콩크리트고기배를 매우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건조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새로 건조된 쇠그물콩크리트고기배는 서호수산사업소에서 운영시험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고기잡이에서 성과를 올리고있다.

쇠그물콩크리트고기배의 성공적인 건조는 많은 철판과 자금을 절약하면서도 종전의 철배나 나무배에 비하여 항행일수를 늘이고 물고기생산량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

이 성과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서 의의가 클뿐아니라 세계적추세에 맞게 콩크리트배무이를 계속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안겨주는데 이바지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더욱 부각되고있다.

현재 서호수산사업소에는 쇠그물콩크리트고기배를 건조할수 있는 작업환경과 기술력량이 원만히 꾸려져있다.

서호수산사업소에서는 쇠그물콩크리트고기배의 척수를 늘이고 그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투쟁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본사기자 김경철

오직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

온 나라에 봄향기가 차넘치게 하시려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이 끝없이 넘쳐흐르는 어머니 내 조국,

우리 인민에게 제일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 이 땅의 곳곳에서는 그 얼마나 그윽한 사회주의향기가 넘치는것인가.

우리가 얼마전에 찾았던 신의주화장품공장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전하며 그윽한 향기를 한껏 풍기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신의주화장품공장과 그 주변의 정갈한 공기, 독특한 향기는 우리의 폐부로 한껏 흘러들고있었다.

공기가 류달리 맑다고 감탄하는 우리에게 동행한 일군은 공장에 어려있는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들려주는것이였다.

우리 공장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하여 일떠선 현대적인 화장품생산기지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공장에 여러차례 찾아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중에서도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88(1999)년 6월 현지지도이다.…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소문도 없이 신의주화장품공장을 찾으시였다.

순간의 휴식도 없이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지금은 제품의 량을 늘이는것도 중요하지만 질을 높이는것이 기본이라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설비들을 마련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농촌에 내보내는 화장품과 도시에 내보내는 화장품은 형식은 좀 다를수 있지만 질은 꼭같아야 한다고, 농촌처녀들과 도시의 처녀들이 다 우리의 청년들인것만큼 다같이 곱게 화장하게 하여야 한다신 웅심깊은 말씀,

질좋은 화장품을 생산하여 평양시안의 백화점을 비롯한 상점들에서 다 인민들에게 팔아주어야 한다고 하시는 은정어린 말씀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감격에 휩싸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자본주의나라에서 쓰는 화장품보다 더 좋은 화장품을 쓰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무가 있고 산을 끼고있는 경치좋은 곳에 공장을 새로 건설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일군들의 심장은 뜨거운 격정으로 세차게 고패쳤다.

당시는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시기여서 이미 생산토대를 갖춘 공장을 다른 곳에 옮겨짓는다는것은 쉽게 용단을 내릴수 없는 일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을 위하여 오늘만이 아니라 먼 후날도 내다보시며 공기와 물이 좋은 곳에 공장을 옮겨지을 단호한 결심을 내리신것이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나라사정이 어려운 속에서도 로동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원철로를 폭파해버리신것과 같은 용단이였다.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화장품생산에서는 신의주화장품공장이 패권을 쥐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석탄보장대책과 전기보장대책, 원료보장대책을 일일이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화장품생산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울 방향과 방도까지 환히 밝혀주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질좋은 화장품을 사용하게 될 인민들의 모습을 기쁨속에 그려보시며 공장을 떠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차례나 공장을 찾아주시며 수질이 좋은 샘물원천을 찾아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질좋은 화장품을 생산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화장품생산의 무인화, 무균화실현을 비롯하여 최상급의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표들을 제시해주시고 온갖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비누직장, 치약직장, 화장품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들과 작업반들의 현대화된 생산공정과 꽃향기가 풍기는 공장구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이 잘 꾸려져있었다.

생산공정에서 줄줄이 쏟아져나오는 화장품들, 깨끗하고 알뜰하며 정가로운 일터, 공기처럼 흘러넘치는 화장품향기…

현대적인 설비들마다에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시려는 어버이장군님의 인민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는가.

이 그윽한 봄향기를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자욱자욱은 그 얼마이며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은 또 얼마인가.

참으로 우리 나라의 곳곳에 넘쳐나는 사회주의향기는 인민사랑을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 마련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정히 간직하고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며 공장의 로동계급은 충정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왔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생산제품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화장품을 마련해주시려고》를 최상의 수준에서 모시였으며 여러 직장에 백두산3대장군의 고향집을 형상한 전광사진들을 정중히 모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하기 위하여 생산현장까지 물판공사를 진행하여 화장품생산공정의 무균화를 철저히 보장한 깨끗한 량심, 여러차례의 실패에도 주저하지 않고 질좋은 화장품용기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여 국가에 많은 리익을 준 자력갱생의 밑바탕에는 이곳 로동계급의 백옥같은 충정과 불타는 헌신이 놓여있었다.

공장에서는 공업시험소와 기술준비실같은 연구기지를 잘 꾸려놓고 여러가지 화장품들을 다양하게 만들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관철에서도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기술자, 로동자들이 합심하여 생산공정의 콤퓨터화를 실현하고 최첨단과학기술성과로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여 생산에 도입하였다. 공장에서 생산된 치약과 로화방지크림을 비롯한 수십가지의 기능성화장품들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공장에서는 수삼나무와 오동나무, 잣나무를 비롯한 28종의 나무 10만그루와 1 000여종의 꽃관목을 심어 영광의 일터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훌륭히 꾸리였다.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나날에 공장에서는 인삼물크림을 비롯한 여러종의 화장품이 국제품질인증을 받고 10여종의 화장품이 국내품질인증을 받았으며 수많은 과학기술성과등록증과 새 기술도입증, 창의고안증서를 받게 되였다.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여받은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의 전시회와 전람회에서 1등을 하는 영예도 지니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최상의 화장품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을 더욱 늘이도록 또다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공장의 종업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이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하기 위하여 화장품생산과 최첨단돌파전에 련속적인 박차를 가하고있었다.

사람들이여, 봄향기화장품을 무심히 보지 마시라. 겨울에도 풍기는 봄향기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어려있음을 잊지 마시라.

우리는 신의주화장품공장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따뜻한 축복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정속에 온 나라 인민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신심을 주는 사회주의봄향기를 더욱 그윽하게 풍겨줄것이라는 확신속에 공장을 떠났다.

본사기자 정선철

청사건설이 중지되게 된 사연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갈피마다에 새겨진 하많은 인민사랑의 이야기들은 오늘도 뜨거운 추억을 불러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으시였지만 자신에 대한 그 어떤 특혜와 특전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같이 겸허하고 소박하게 생활하시였다.》

주체49(1960)년대말 그때까지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내각사무국청사안에 있는 집무실에서 사업하고계시였다.

한 나라 국가수반이 사업하기에는 너무도 소박하고 수수한 이 청사에서 우리 수령님께서는 내각의 중요한 협의회도 소집하시고 일군들과 사업토의도 하시였으며 찾아오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을 만나시여 허물없이 이야기도 나누시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청사에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이어가시였다.

그이를 몸가까이 모시고 일하는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께 모든 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진 집무실을 마련해드리지 못한것으로 하여 늘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고있었다. 일군들은 벌써 몇해째나 국가건설계획을 세울 때마다 정부청사를 건설할것을 예견하군 하였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고 공장이나 학교들도 건설할것이 많은데 그런것부터 먼저 지어야지 정부청사나 크게 짓고 앉아있어서야 무엇하겠느냐고 하시면서 매번 국가건설계획에서 청사건설항목을 삭제해버리군 하시였다.

일군들은 토론끝에 집무실과 서재, 접견실들을 예견한 크지 않은 청사를 하나 지어드리기로 하고 시공에 착수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만수대언덕밑을 지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작업장을 보게 되시였다.

모래와 자갈이 무둑히 쌓여있는 작업장을 돌아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여기에다 무슨 공사를 벌려놓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정부청사가 너무 비좁고 불편하기때문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사실대로 보고드리였다.

한동안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기초를 도로 묻어버리라고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결론이 없이 일을 시작한 자신들의 잘못을 비판하면서도 이 공사만은 어떻게 하나 승인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정부청사를 새로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날 때에 좀 불편은 하지만 다 참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보통강반에 인민문화궁전을 크게 지으면 거기서 연회도 하고 조인식도 하면 된다고 일군들을 일깨워주시였다.

앞으로 학교도 더 짓고, 유치원, 탁아소와 인민들의 살림집도 더 지어야 한다고 건설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늘중으로 공사를 중지할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이르시였다.

이렇듯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끝없는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 인민은 그이께서 탄생 60돐을 맞으실 때까지도 새로운 집무실 하나 마련해드리지 못하였다.

채 히 성

어버이사랑이 낳은 감동깊은 일화들

유람선을 타신 리유

주체75(1986)년 6월 어느 일요일 몇몇 일군들을 부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늘은 유람선을 타고 대동강의 풍치를 구경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유람선에 오르게 된 일군들은 수령님께서 잠시나마 휴식하실수 있게 되였다는 기쁨으로 흥분을 금치 못해하였다.

배가 모란봉의 청류벽을 지나 옥류교를 가까이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대동강에 깃든 옛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이의 곁으로 바싹 다가들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봉이 김선달이가 대동강의 물을 팔아 량반놈들을 골탕먹이던 이야기를 손시늉을 해가시며 말씀하실 때 일군들은 어린애들마냥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이따금 대동강기슭을 바라보시며 누구에게라없이 나무를 심어야 하겠다고, 혹은 석축도 해야겠다고 조용히 뇌이시는것이였다.

어느덧 유람선이 시내중심을 벗어나 만경봉밑에 이르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느닷없이 일군들에게 오늘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오길 잘했다고 말씀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시내중심에는 대동강기슭을 따라 석축도 하고 나무도 많이 심어 보기좋지만 여기는 그렇지 못하다고, 짧은 기간에 대동강기슭의 돌쌓기공사도 하고 나무도 많이 심어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더 잘 꾸려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제서야 일군들은 그이께서 유람선을 타고 대동강의 풍치를 구경하자고 하신것은 결국 휴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환경을 마련해주시기 위한것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낚시질을 하시면서도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가을 어느날 북방의 산간지대를 현지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가까운 강가에 나가 낚시질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잠시나마 쌓이신 피로를 푸실수 있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일군의 마음은 마냥 기뻤다.

이윽고 강가에 이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낚시대를 드리우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련거퍼 산천어를 낚아내실 때마다 일군은 너무도 신이 나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런데 연방 물려나오던 고기가 즘즘해졌다.

의아한 표정으로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던 일군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이께서는 물면우의 한곳에 눈길을 보내신채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는것 아닌가.

조용히 다가온 일군이 고기가 물렸다고 알려드려서야 사색에서 깨여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낚시대를 잡아채시였다.

큰 산천어 한마리가 먹이를 통채로 삼킨채로 끌려나오더니 풀밭에 털썩 하고 떨어지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놈의 고기가 남의 사색을 다 빼앗아갔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낚시질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도 전기를 생산할수 있는 수력자원이 풍부하다. 낚시터에서 조금 올라가면 작은 강줄기들이 합치는 목이 있는데 거기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우에 조금 올라가서 또 발전소를 건설할수 있다. 이렇게 작은 강줄기에도 중소형발전소들을 건설하면 긴장한 전기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 전기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나라는 잘살수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더 높아질수 있다. …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를 이어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소리없이 흘러내리였다.

본사기자 정순학

우리의 철갑상어는 바다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사회주의바다향기가 강산에 차넘치고있다.

땅우에는 단풍계절 한해 한번 있다지만 우리네 바다는 사시장철 풍성한 가을일세 산더미로 퍼올려 어그여차 물고기산 쌓아라 어그여차라는 《바다 만풍가》가 절로 흘러나온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동해와 서해에서 쌍으로, 련속으로 일어나는 흐뭇한 물고기풍년바람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부름을 떠올려본다.

우리의 위성은 하늘을 날고 우리의 철갑상어는 바다로 간다!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가 이룩해가는 부강번영의 리상과 매일같이 맞이하는 비약과 혁신의 새 소식들이 생동한 화폭으로 어려온다.

고난의 천리가 행복의 만리로 바뀌고있는 시대의 숨결속에서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의 로고가 뜨겁게 느껴진다.

나라가 시련을 겪고있을 때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 래일을 그려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철갑상어양어를 결심하시고 시작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철갑상어양어에서의 성공은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로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체98(2009)년 6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따스한 해볕이 쏟아지던 류달리도 쾌청한 이날 산중의 바다를 련상케 하는 한 양어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위성은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바다로 나가게 된 자랑찬 현실을 두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가없이 맑은 하늘아래 푸른 버들이 휘늘어진 못가에서 희귀한 철갑상어들이 떼지어 흐르는 광경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잘사는 인민으로 되게 하려고 한다고, 우리 인민들은 마땅히 철갑상어료리와 같은 세계적인 고급료리도 맛보아야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하고 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하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리상이 어려와 일군들의 가슴마다에서는 세찬 격정이 일어번졌다.

철갑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 이 얼마나 자랑찬 현실인가고, 만난을 이겨내고 강성국가의 분수령에 오르게 된 오늘 자신께서는 시련도 많고 곡절도 많았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혁명은 바로 이런 재미에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자부심과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장군님,

준엄한 력사의 폭풍을 헤치시면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어버이, 위대한 인간이신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펼치실수 있는 애국의 세계앞에 일군들의 마음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로동당시대에 번영하는 조국, 날로 흥하는 인민의 행복이 그리도 만족스러우시여 흥에 겨워 《바다의 노래》를 부르시던 그때처럼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민의 꿈이 현실로 꽃펴나는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이것이 나의 활동의 근본원칙이고 생의 목표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모진 고난속에서도 래일의 승리를 믿으며 변함없이 한길을 걸어온 천만군민이 바라고바라던 번영과 행복이 얼마나 풍만하게 꽃피고있는가를 철갑상어는 우리에게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이 땅에 넘치는 사회주의바다향기에 실려.

본사기자 리금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몽골 국가대회의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르. 곤치그도르쥐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국가대회의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마니바드라힌 간볼드 주조 몽골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부의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존경하는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대통령각하가 보내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체류기간 조선의 발전된 모습과 가는 곳마다에 일떠선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이번 대표단의 방문이 몽골과 조선사이의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 해나가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고 하면서 그는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가 확대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어머님을 그리던 남녘의 마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머님의 한생은 길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고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한생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에 젖는 9월이면 나에게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목격한 사실들이 떠오르군 한다. 60여년전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체험하였던 일들이 아직 나의 기억속에 생생하다.

인민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광주시의 시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며 녀맹사업을 방조할데 대한 임무가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이였던 나에게 맡겨졌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간고하였다.

기차를 타기도 하고 전선으로 달리는 포차에 앉아 밤새 달리기도 하였는데 미국놈들의 폭격이 너무 심하여 낮에는 적당한 곳을 찾아 대피해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덕에 해방된 남녘땅 인민들을 많이 만날수 있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우리들모두가 한결같이 느낀것은 그들속에서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흠모의 열기가 대단히 높은것이였다.

서울시민들은 물론이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어머님에 대해서 물었고 한가지 사실이라도 더 알고싶어하였다. 어머님을 한번도 직접 만나뵙지 못하고 어머님의 한생에 대하여 아는것도 많지 못하였던 나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대학기간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뜨거운 격정과 흥분으로 가슴설레이군 한 나였지만 단편적이고 일면적인 나의 《재산》에 그들이 만족할리 없었다.

광주시에 도착하여 사업하는 과정에 나는 고진히동지로부터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 그것이 해방지역 인민들과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였다.

태양의 해발이 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하시고 능숙한 군중정치사업으로 인민들을 조국해방성전에 묶어세우신 어머님의 모범은 나의 삶과 투쟁의 귀감으로 되였고 그것은 곧 정치공작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였다.

한번은 내가 광주시녀맹위원회 청사에서 진행된 모임에 강사로 출연한적이 있었다. 시안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을 비롯한 많은 녀성들이 참가하였었다.

인민군대원호를 잘할데 대한 연설을 마쳤는데 누구도 움직일념을 하지 않았다. 청강자들속에서 누군가 다급히 일어서더니 나를 향해 웨치는 소리와 함께 장내가 술렁거리였다.

존경하는 김정숙녀사께서 백발백중의 명사수이시였다는데 그에 대해서 말해줄것을 요청하였다.

그 녀성의 모습에서 나는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절대로 자리를 뜨지 않을 군중의 의향을 읽을수 있었다.

처음 당하는 일은 아니여서 침착하게 몸가짐을 가지는 나에게 선참으로 떠오른것은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뵈온 김정숙어머님의 모습이였다. 몸소 질통을 지시고 평양시민들과 함께 공사장에서 일하시던 어머님을 먼발치에서나마 우러르던 일이 금시처럼 생생히 떠올랐다.

언제나 소박한 차림이시였던 어머님, 저택에 찾아온 황해도 농민이 미처 알아뵙지 못한 일화를 남기신 어머님의 인품에 대하여 청강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나의 목소리도 차츰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장내는 물을 뿌린듯 하였고 청강자들은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기보다 온넋으로 빨아들이는듯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련마하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신 어머님,

어머님께서 수령결사옹위의 총성을 높이 울리신 항일의 전구들과 그 나날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전하기에는 나의 언어구사능력이 너무나도 모자랐다.

준엄한 날에나 평범한 날에나 항상 총과 함께 호위장군의 고귀한 한생을 빛내이신 어머님에 대해 들으며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표시하고 그이의 서거에 애석함을 금치 못해하던 청중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삼삼하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며칠 앞둔 9월 22일을 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미제가 또다시 대병력을 투입하였기에 정세는 매우 엄혹하였다.

점심무렵에 고진히동지를 만났는데 숙연한 눈빛으로 북녘하늘을 바라보며 평양에서는 오늘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의 말에 나도 눈굽이 젖어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이날이 어머님께서 서거하신지 1돐이 되는 날임을 잘 알고있는 우리들이였다.

고진히동지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 때이지만 소박하게나마 어머님을 추모하는 모임을 가질것을 발기하고 조직사업을 해나갔다.

어머님을 그리며 흠모하는 남녘의 민심이 세차게 굽이친 추모모임은 저녁에 진행되였다.

꽃다발과 화환으로 둘러싼 가운데를 좀 높이고 가장자리에 초불을 켜놓았지만 어머님의 사진을 모시지 못하는것이 정말 아쉬웠다. 이때 고진히동지가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하였던 자그마한 주머니를 꺼내서 거기에 정중히 놓는것이였다.

해방된 남녘땅에서 사업할데 대한 과업을 받고 평양을 떠나면서 그는 모란봉에 있는 어머님의 묘소를 찾아 인사를 드리였었다. 해방된 고향 제주도에 어머님을 모시고싶었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묘소의 흙 한줌을 제손으로 만든 주머니에 정히 담아 품고온 고진히동지였다.

어머님께서 그처럼 념원하시던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김일성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 모시자고 호소하는 고진히동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모임장소에는 격정의 대하가 설레이였다. 위대한 녀성혁명가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심이 파도치는 뜻깊은 자리였다.

남녘의 이르는 곳마다에 굽이친 어머님에 대한 인민들의 흠모의 마음은 전선원호에로 이어졌다. 그리고 북녘하늘을 바라보며 인민군대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간고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주저없이 나서도록 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내가 체험하였던 사실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을 다시금 상기하고싶다.

20살 꽃나이처녀였던 나와 함께 그때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올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알수는 없다. 그러나 김정숙어머님을 흠모하여 신념으로 선택한 길에서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들이 보람차고 값높은 삶을 누렸으리라는것만은 당당히 확언할수 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생애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위대한 혁명가의 고귀한 귀감으로 길이 빛날것이다.

선봉농업대학 교수 박사 로재선

인민경제의 생명선인 석탄전선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자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한길로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지금 나라의 동력기지들이 용을 쓰며 전력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북창의 대동력기지 저탄장에도 화차들이 미처 석탄을 부리우지 못할만큼 키높은 석탄산들이 솟아오르고있다.

이것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석탄,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련대적혁신의 불길높이 증산, 증송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에 마련된 자랑찬 성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이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분야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덕탄광에서는 벨트콘베아수송선건설전투가 시작되였다.

당면한 증산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면서 또 하나의 중요대상공사를 펼친다는것은 결코 쉽게 내릴 용단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보다 더 높은 증산목표를 돌파하자면 반드시 새로운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는것이 석탄공업성과 이곳 련합기업소참모부 일군들이 찾은 결론이다.

통이 크게 내세운 작전의 서막이라고 할수 있는 남덕탄광 벨트콘베아수송선건설전투는 얼마전부터 개시되였다. 벌써 남덕탄광 3갱 김영민고속도굴진소대를 비롯한 전투력있는 굴진력량이 이 계선에 집중투하되여 본격적인 굴진전투를 벌리고있다.

전투작전의 주요내용을 보면 벨트콘베아수송선설비를 들여놓을 갱을 따로 굴설하는것이 아니라 현재 잘 굴설된 전차운반로선을 그대로 리용하자는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의 전차운반로선우에 벨트콘베아수송선설비를 들여놓고 갱들에서 나오는 석탄을 집중하기 위한 갱도를 굴설한다면 적은 투자로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탄광의 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다. 그 실현을 위하여 련합기업소와 탄광에서는 6갱과 지금의 운반로선을 련결하는 관통굴진전투를 1단계점령목표로 내세웠다.

3갱 김영민고속도굴진소대 굴진공들의 드세찬 공격전에 의하여 공사의 돌파구가 크게 열리였다.

한편 인포탄광 1갱 250연선에서는 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9월말까지 목표로 내세운 이 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탄광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갱에 또 하나의 운반로선이 생겨나고 탄차순환을 높여 운반능력을 부쩍 높이게 되였다.

29일현재까지 이곳 탄부들의 투쟁에 의해 1000여m구간에 해당한 레루설치작업이 끝남으로써 새로운 운반로선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였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굴진을 석탄생산에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주도세밀하게 펼치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고있다.

남덕탄광 2갱과 9갱, 인포탄광 1갱을 비롯한 련합기업소 탄광들의 주요개소들에서 더 많은 예비채탄장을 마련하기 위한 굴진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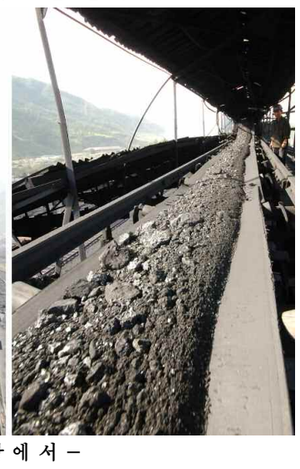
특히 남덕탄광 1갱, 인포탄광 1갱구역을 비롯한 15개 대상에서 굴진전투가 벌어져 10여만t의 석탄을 확보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각 탄광 고속도굴진, 굴진소대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의 방법으로 진행된 이 전투결과에 의해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이 석탄생산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생산의 전망을 열기 위하여 한개 단위씩 맡고 내려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폭발시키면서 대오의 진격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고있다.

석탄생산에서는 남덕탄광 10갱과 2갱, 인포탄광 3갱과 2갱, 회안탄광 1갱과 2갱의 탄부들이 련일 높이 내세운 증산목표수행의 승전고를 울리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모든 전투단위들에서 더 높은 전투목표를 강행돌파하기 위한 총돌격전이 고조를 이루는 가운데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현행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리면서 생산의 전망을 열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설계하고 완강하게 내밀고있는 련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이 앞으로 이룩하게 될 투쟁성과가 기대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 명 천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인포탄광에서-

증산열풍은 북부탄전에서도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석탄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석탄생산에서 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현재 화력탄보장을 맡은 탄광들에서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10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일, 교대당 석탄생산계획을 150%, 200%로 넘쳐 수행하는 갱, 교대들이 늘어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전력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련합기업소안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더 많은 석탄을 캐내여 나라의 전력증산에 이바지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떨쳐나섰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석탄생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책임일군들이 갱막장에 전투위치를 정하고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로 돌격대가 조직되고 일군들모두가 들끓는 갱막장으로 들어갔다. 갱막장에 들어간 일군들은 격동적인 호소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탄부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면서 걸린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고있다.

화력탄보장을 맡은 탄광들에서 증산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는 속에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중봉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당의 전투적호소에 접한 그 시각부터 막장마다에서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이들은 높이 세운 석탄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매일 석탄생산실적을 높여나가고있다.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과 종업원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긴장한 속에서도 서로의 힘을 합쳐가며 탄차수리전투를 짧은 기간에 진행하여 석탄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또한 석탄생산을 내밀면서 해당 부문 일군들의 방조밑에 많은 량의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10여량의 화차들을 보수하여 석탄수송에 이바지할수 있게 하였다.

학포탄광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이곳 탄부들은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탄광에서는 군중을 발동하여 석탄생산에 필요한 동발나무의 많은 몫을 자체로 해결하고있다.

풍인탄광의 탄부들은 모든 교대들에서 그날생산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면서 중앙과도의 일군들의 방조밑에 기중기보수를 짧은 기간에 끝내여 캐낸 석탄을 제때에 화력발전소들에 보내주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갱막장들에 전투위치를 정하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석탄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앞질러가며 풀어주어 석탄생산이 중단없이 진행되게 하고있다.

화력탄보장을 맡은 탄광들에서는 자력갱생기지들을 꾸려놓고 탄차와 설비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석탄증산으로 들끓는 갱막장들에 보내주고있다.

탄광별, 갱별, 교대별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석탄생산이 종전에 비하여 1.2배로 뛰여오르는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화력탄보장을 위한 석탄생산계획을 높이 세우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특파기자 리 은 남

다음교대를 위하여!

남덕탄광 2갱의 탄부들

9월전투가 시작되여 어느 탄광, 어느 막장에서나 증산의 가슴후련한 전투기록이 전해지고있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덕탄광에서도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탄광에서는 9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여t의 석탄을 더 생산하여 화력발전소로 보내주었다.

이 자랑찬 투쟁성과속에는 2갱 탄부들의 위훈도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켜야 합니다.》

얼마전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날에날마다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해나가고있는 갱을 찾았던 우리는 분초급당비서 김기호동무와 자리를 같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갱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의 비결에 앞서 그는 채탄2중대 2소대 채탄공 리광철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랜 기간 갱에서 일해오는 기능높은 채탄공인 리광철동무는 늘 혁신의 앞장에 서군 하는 대오의 기수이다.

머칠전 2소대의 채탄막장에서는 예상치 않게 큼직한 돌무지가 내려앉아 이들의 전진을 멈추어세웠다. 일정한 기간 운영해온 채탄장이여서 돌무지뒤로 탄이 나올수 없다고 하는 탄부들도 있었다. 공연히 돌무지를 처리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예비채탄장으로 막장을 옮기자고 하는 탄부들의 의견을 물리치며 그는 공간속으로 뛰여들었다. 안전등의 불빛으로 막장상태를 주의깊게 뜯어보던 그는 확신성있게 돌무지를 옮기기 위한 작업에 달라붙었다. 그의 뒤를 따라 다른 탄부들도 힘을 합쳐 달라붙은 결과 소대의 전진을 가로막았던 돌무지가 처리되였고 교대시간을 앞두고 높이 내세운 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탄부들은 높이 내세운 증산목표를 돌파한 기쁨을 안고 퇴근길을 서둘렀다. 그런데 리광철동무만은 막장을 뜨려고 하지 않았다. 교대전투목표는 수행하였어도 그냥 퇴근길에 오른다면 다음교대의 탄부들이 작업준비를 갖추느라 일정한 시간이 걸릴것이였다. 그는 교대를 서두르는 탄부들에게 호소하여 다음교대 석탄생산에 필요한 동발나무도 막장으로 접근시켰고 석탄을 실은 탄차들을 밀어내고는 빈 탄차들을 조구결에 세워놓았다. 리광철동무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석탄을 실은 탄차우에 몇개의 마대를 더 올려싣고 탄차를 밀며 퇴근길에 올랐던것이다. 비록 탄차우에 올려놓은 마대에 실린 석탄의 무게는 많지 않아도 그의 마음속에는 한t의 석탄이라도 더 화력발전소에 보내주려는 마음이 깔려있었던것이다. 얼마후 막장에 들어선 다음교대의 탄부들은 곧바로 생산돌격전에 진입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 교대에서도 높이 내세운 증산목표를 넘쳐 수행할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갱의 초급일군들은 그의 모범을 따라 갱의 모든 탄부들이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이렇게 타올랐다.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한t의 석탄이라도 더 발전소에 보내주려는 탄부들의 증산열의속에 갱의 생산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뛰여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질좋은 석탄생산에 중심을 두고

덕성탄광에서

9월전투가 시작되여 덕성탄광에서는 이전시기보다 하루평균 240여t 더 많은 석탄을 화력발전소로 보내주고있다.

이와 함께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질좋은 석탄을 화력발전소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화력발전소들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득장청년탄광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광에서는 석탄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일군들부터가 단단히 각성하고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은 생산지휘의 중점을 모든 단위들에서 석탄질을 높이는데 두고 첫 공정부터 화차에 싣는 마지막 공정까지 지향시키고있다.

석탄증산을 위한 갱단위별사회주의경쟁도, 탄부들의 하루일에 대한 평가도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조직진행하고 총화하고있다.

2갱의 채탄중대들에서는 수평분층채탄법을 받아들여 석탄채취률과 질을 동시에 높이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다른 갱들에서도 수평분층채탄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는 동시에 탄부들이 채탄작업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한줌의 버럭도 섞이지 않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운반갱에서 창안도입한 회전원통식덩어리탄선별기가 은을 내고있다. 이 선별기를 리용하면서 선별로력은 종전에 비해 절반이나 줄어든 반면에 선별속도는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탄광에서는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실속있게 하여 탄부들이 생산량을 늘이는데 앞서 질문제를 먼저 생각하면서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연 전 행

따뜻한 대지에 무성한 해바라기들을 키운 참된 당일군

평양고무공장 초급당비서 곽성수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이 어머니당의 일군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인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자면 진정으로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녀야 합니다.》

인간사랑의 대화원인 선군의 내 조국땅에 만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또 하나의 감동깊은 이야기가 꽃펴났다. 39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있는 오초옥부부를 잘 도와주고 그들모두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선군혁명투사들로 억세게 키워온 평양고무공장 초급당비서 곽성수동무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기 말은 사업에 충실하면서도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1년도 아니고 15년세월을 헌신해온 곽성수동무의 뜨거운 인간애의 자욱자욱을 더듬어보자.

친부모의 사랑을 안고

이 이야기는 15년전 2월 어느날 대성구역당위원회 회의실에서부터 시작된다. 대성구역당위원회 비서로 사업하고있던 곽성수동무는 그날 오초옥부부가 키우고있는 부모없는 수십명의 아이들이 출연하는 예술소품공연을 보게 되였다. 눈물없이는 마주할수 없는 공연이였다.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그처럼 어려운 시기 도처에서 부모없는 아이들을 키우고있는 미풍자들이 있다는것은 알고있었지만 자기 구역에 이런 훌륭한 로동자부부가 있다는것을 알게 된 그였다.

(자식이 두명인 나도 아이들때문에 속을 썩일 때가 있는데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한두명도 아니고 그처럼 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것인가.)

이런 의문을 안고 그는 그날 저녁 오초옥동무네 집에 갔다.

방에 들어서자 수십명의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우르르 달려와 그의 옷자락에 매달리였다. 탁아소에 다니는 3살 난 어린이로부터 14살까지의 어머니손길이 제일 많이 가야 하는 아이들이였다. 물론 친자식도 있었다.

이 이야기는 15년전 2월 어느날 대성구역당위원회 회의실에서부터 시작된다. 대성구역당위원회 비서로 사업하고있던 곽성수동무는 그날 오초옥부부가 키우고있는 부모없는 수십명의 아이들이 출연하는 예술소품공연을 보게 되였다. 눈물없이는 마주할수 없는 공연이였다.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그처럼 어려운 시기 도처에서 부모없는 아이들을 키우고있는 미풍자들이 있다는것은 알고있었지만 자기 구역에 이런 훌륭한 로동자부부가 있다는것을 알게 된 그였다.

(자식이 두명인 나도 아이들때문에 속을 썩일 때가 있는데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한두명도 아니고 그처럼 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것인가.)

이런 의문을 안고 그는 그날 저녁 오초옥동무네 집에 갔다.

방에 들어서자 수십명의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우르르 달려와 그의 옷자락에 매달리였다. 탁아소에 다니는 3살 난 어린이로부터 14살까지의 어머니손길이 제일 많이 가야 하는 아이들이였다. 물론 친자식도 있었다.

한끼를 먹이자고 해도 가마가 자그만치 6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보다도 그의 가슴을 친것은 자기 하나의 행복보다 조국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며 어려운 길에 주저없이 나선 그들 부부의 고결한 정신세계였다.

(이런 훌륭한 부부를 위해 당일군인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대답을 찾기 전에는 대중앞에 떳떳이 나설수 없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안해에게 심정을 터놓았다.

《난 오늘 오초옥부부의 소행을 놓고 자책되는바가 컸소. 남들에게 조국과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당일군부부인 우리가 어버이장군님의 어깨에 실린 무거운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을 찾아하기요. 그의 가정을 우리가 말아 도와주자는거요.》

일시적인 충동에서 한 말이 아님을 안해는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때부터 오초옥부부와 그의 가정을 위한 한 당일군의 헌신의 자욱이 새겨지게 되였다.

구역안의 크고작은 일을 맡아보는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그가 부모없는 아이들을 돌보자니 어깨우에 실린 짐은 몇갑절 무거웠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다. 당일군으로서 응당 져야 할 짐을 지는것으로 생각하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극성스럽게 도와나섰다.

하루에 빨래감만 해도 세버치가 나온다고 하던 오초옥동무의 남편의 말을 새겨두었다가 세탁기도 보내주었다. 아이들의 건강과 생활형편을 수시로 알아보기 위해 집전화도 놓아주게 하고 자기 집에 별식 한가지가 생겨도 그의 집부터 찾군 하였다. 해마다 김장철이면 남새를 꼭꼭 보내주었고 뗄감이 떨어질세라 관심하며 사랑과 정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성격과 취미, 자라온 환경이 서로 다른 부모없는 아이들을 한식솔로 만든다는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설명절이 가까와오던 어느날이였다. 4명의 아이들이 말도없이 집을 나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곽성수동무는 아이들을 찾아 길을 떠났다. 로상에서 헤매다가 날이 밝아올무렵에야 오초옥동무네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더이상 발을 내짚을 힘이 없어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이때 오초옥동무의 자식들이 달려왔다. 자기들이 그들을 따돌려 집을 나가게 했다고 잘못을 터놓는 아이들에게 곽성수동무는 말하였다.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어머니구실을 다하지 못했기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다음날 4명의 아이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을 찾은 곽성수동무는 호되게 꾸짖었다.

《너희들이 자꾸 집을 나가는 건 단지 어머니속만 태우는것이 아니란다. 그건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장군님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는것이라는 걸 명심하거라. 그만큼 컸으면 이걸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자 아이들은 곽성수동무의 품에 와락 안겨들었다.

《비서아버지,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몸이 약한 아이들의 몸보신에 쓰라고 콩기름과 여러가지 영양음식을 가지고 찾아왔던 일이며 토끼곰과내의류, 이불과 담요를 한가득 가지고 찾아온 일들 그리고 자기 집에서 리용하던 천연색텔레비죤수상기를 안고왔던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곽성수동무가 부모없는 아이들의 생활을 얼마나 극성스럽게 돌보아주었는가는 일철이가 중학교에 다닐 때 리용하던 일기장의 한 페지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생일, 오늘은 손꼽아 기다리던 내 생일이다. 생일날이면 비서아버지가 가지고온 음식상에 빙 둘러앉아 생일을 쇠는데 습관된 우리들이다. 그런데 오늘은 왜서인지 밤 11시가 퍽 지나서야 오시였다. 몹시 바쁘신 모양이다. 생일음식과 나를 위해 준비해온 샤쯔와 바지, 신발을 내놓는 비서아버지의 얼굴과 옷은 땀으로 젖어있었다. 공장에서 수십리 떨어진 우리 집까지 달려왔을 아버지이다. 새옷을 입혀주고 신발이 맞는가고, 어디 걸어보라고 다정하게 말하는 비서아버지를 보며 나는 속으로 울었다. 나를 낳아준 친어머니같아서였다. …》

이런 이야기도 있다.

혼철이형제를 데려온지 얼마 지나서였다. 설명절이 다가오던 어느날 혼철이가 오초옥동무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가며 만들어놓은 10여벌의 아이들의 솜바지와 대학생누나의 교복까지 몽땅 걸어가지고 어디론가 달아났다.

(어쩌면 아이들이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준단 말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혼철이가 괘씸하게 생각되고 야속하였다. 그는 자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자리에 눕고말았다. 이 소식을 어느새 알았는지 곽성수동무가 수소문하여 찾은 혼철이를 데리고 그의 집에 불쑥 들어섰다.

조국앞에 떳떳이 내세우며

곽성수동무의 부모없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무른 정만이 아니다. 그는 오초옥동무가 애지중지 키운 부모없는 아이들을 쭉정이가 아니라 총알같이 여문 나라의 기둥감들로 억세게 키우기 위해 사랑을 주고 아픈 매도 먼저 들었다.

오초옥동무가 데려다 키우고있는 부모없는 아이들중에는 천성적으로 몸이 약한 아이들이 있었다. 곽성수동무는 그런 아이들은 평양고무공장에 받아들이였다. 영양식사일람표를 만들어놓고 따로 영양보충을 시키였다. 또한 집에 간단한 운동기재들을 보내주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공장에 여러가지 체육기재를 만들어놓고 체력을 단련시킨 다음 취미와 소질에 맞는 직종에 배치하였다. 로동을 통하여 근로정신을 배우고 조직생활을 통하여 우리 당의 믿음직한 선군청년전위로 키워나갔다.

성심이가 되는대로 생활하던 나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말썽을 일으켜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고있을 때에도 곽성수동무는 주저없이 그를 공장에 데려왔고 품을 들여 키워 혁신자로 되게 하였었다. 세해전 3월 사회에 진출하여 일하던 3명의 부모없는 청년들이 결혼식을 하게 되였을 때였다. 그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결혼상을 성의껏 차려주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이불과 담요, 부엌세간을 마련해주었다.

결혼식날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술을 붓는 신랑, 신부에게 곽성수동무는 말하였다.

《난 너희들이 앞으로도 우리 당을 받들어 충정의 한길만을 걷기 바란다.》

이것은 곽성수동무의 진정이였고 간곡한 당부였다. 이렇게 그는 현재까지 오초옥동무가 데려다 키우고있는 13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두차례나 받고 병원에 입원해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그에 대한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후 초소로 떠나간 태현이가 군사임무수행중 전사하였을 때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가슴을 쳤다.

참으로 곽성수동무의 값높은 헌신은 부모없는 아이들의 성장의 훌륭한 밑거름이였다.

오초옥동무의 집 한쪽벽면에는 27개의 조선인민군입대증이 걸려있다. 거기에는 부모없는 아이들모두를 선군혁명투사들로 억세게 키우기 위해 바쳐온 곽성수동무의 진정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난 너희들이 이름을 합치면 무슨 맹세가 되는가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것은 부모없는 아이들의 가슴마다에 깊이깊이 새겨준 곽성수동무의 간곡한 당부였다.

하기에 곽성수동무에게 있어서 제일 큰 기쁨은 오초옥동무의 가정에 총대병사가 한사람두사람 늘어나는것이였고 그들이 조국보위초소에서 위훈을 세우고 조선로동당원이 되여 고향으로 돌아올 때였다. 이런 일군이기에 몸이 허약하여 인민군대에 입대하지 못한 17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공장종업원으로 받아들이고 친딸같이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세웠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뜨거운 인간성을 지니고 따뜻한 대지에 무성한 해바라기들을 키워낸 그의 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렇다. 곽성수동무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간사랑의 숭고한 뜻을 한몸 깡그리 바치여 받들줄 아는 참된 어머니당 일군들이 있기에 우리의 일심단결이 더욱 굳건하고 조국의 미래가 창창한것이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체육강국에로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힘찬 포성, 련이은 승전소식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승리를 떨치고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우리 녀자축구팀 남조선팀을 타승, 결승경기에 진출

제 17 차 아 시 아 경 기 대 회 에 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련전련승하고있는 우리 녀자축구팀이 남조선팀을 2:1로 타승하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29일에 진행된 준결승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위력을 발휘하며 우승후보팀으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보여주었다.

조국과 인민의 당부를 새겨안고 경기장에 나선 우리 선수들의 심장마다에는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릴 굳센 의지와 필승의 기상이 용솟음쳤다.

두 팀간의 대전은 매우 치렬하였다.

중간지대를 장악하기 위한 량팀의 경기활동이 맹렬하게 벌어지고 문전에서의 혼전이 거듭되는 속에 경기시간 12분경 아쉽게도 우리 팀이 먼저 실점을 당하였다.

그러나 우리 팀은 신심을 잃지 않고 경기시간 21분경과 23분경 13번 위정심선수와 14번 전명화선수의 위력한 차넣기 등으로 상대편의 골문을 계속 위협하였다.

경기시간 36분경 위정심선수가 공격마당 오른쪽에서 넘겨준 공을 11번 리예경선수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치있게 문안으로 차넣어 득점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사기충천하여 중간지대를 확고히 장악하고 상대팀 문전에 련속 집중포화를 들이댔다.

1:1로 비긴 가운데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였다.

용기백배한 우리 선수들은 팀의 전술적의도에 맞게 선수호상간 긴밀한 협동으로 다양한 전법을 능란하게 활용하며 더욱 박력있게 경기를 운영해나갔다.

전명화선수가 상대팀 문전에서 머리받기로, 리예경선수가 약 15m 거리에서 강한 차넣기로 좋은 득점기회들을 조성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팀의 공격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우리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속에 후반전 45분이 지나고 주심시간 3분경 주장인 10번 라은심선수가 상대팀 문앞에 몰고들어가 차넣은 공이 상대팀 문지기의 손에 맞고 튀여나왔다.

순간 3번 허은별선수가 돌입하면서 남조선팀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겼다.

결국 경기에서는 우리 팀이 2:1로 남조선팀을 이겼다.

우리 녀자축구팀은 10월 1일 일본팀과 결승경기를 하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령도자의 사랑이 힘의 원천, 조선선수들 련일 세계기록 돌파

여 러 나 라 신 문, 통 신 이 보 도

프랑스신문 《러 스포르》 26일부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선수들이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련일 세계기록을 돌파하고있다.

녀자력기 75kg급경기에 출전한 조선의 김은주선수는 추켜올리기에서 164kg을 들어올려 세계신기록을 세웠으며 종합 292kg으로 조선이 또 하나의 금메달을 쟁취하는데 기여하였다.

남자력기 62kg급경기에 출전한 김은국선수는 련속 아시아경기대회기록, 아시아기록, 세계기록을 갱신하여 관중들의 찬탄을 자아냈다.

조선의 력기선수들은 김정은령도자의 사랑이 자기들의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프랑스신문 《몽드》 17일부가 우리 나라에서의 체육열풍을 소개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축구는 대중적인 체육종목의 하나이다.

나라의 곳곳에 축구장들이 꾸려져있다.

지난해에 새로 일떠선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는 미래의 당당한 국가림선수들을 키워내고있다.

조선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축구 조별련맹전에서 중국팀을 3:0으로 이겼다.

조선에서는 축구뿐아니라 모든 종목에 걸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최근년간 현대적인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청춘거리체육촌을 비롯하여 평양과 지방들에 수많은 체육유희시설과 기지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되였다.

조선의 체육발전은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시는 정열에 넘치고 젊으신 김정은령도자의 정력적인 지도의 결실이다.

평양에 새로 건설된 유희오락시설들과 병원들, 체육시설들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인민들에게 돌려주신 사랑의 결정체이다.

오늘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 ❊

일본의 교도통신이 22일 우리 나라에서의 체육강국건설 열풍을 소개하였다.

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체육강국건설을 목표로 내세우시고 체육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고계시는데 대해 전하면서 그이께서 나라의 전반적인 체육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새로 내오고 체육시설들을 개건확장하도록 하시였으며 특출한 성과를 거둔 선수들에게 온갖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또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남녀축구선수들의 검열경기도 지도하시고 체육경기도 관람하시였으며 우수한 선수들을 만나시여 고무격려해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은 최근 국제경기들에서 놀라운 실적을 올리고있다.

런던올림픽경기대회 력기, 유술종목에서 4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현재 아시아경기대회 력기종목에서 세계신기록들을 세우는 등 눈부신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평양뿐아니라 지방들에도 체육시설들이 훌륭히 건설되여 나라의 체육열풍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력기강국, 세계신기록을 주도하는 북

남조선언론들 우리 선수들의 경기소식 광범히 보도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높이 떨치며 련일 우승하고있는데 대해 남조선언론들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광범히 보도하고있다.

《련합뉴스》는 북의 남자축구팀이 시작부터 중국과의 1차전에서 3:0으로 완승을 거두었다, 북은 조직력과 철저한 세부공격전술로 파키스탄진영을 초반부터 몰아쳐 2:0 완승으로 16강자전에 진출하였다고 전하였다.

남조선 각계에서 우리 녀자축구팀의 경기성과에 대한 경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는 26일에 진행된 중국팀과의 준준결승경기소식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의 녀자축구가 중국을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하였다.

후반전 28분경 북의 허은별선수가 돌파해처럼 솟아올라 시원한 꼴을 뽑았다. 그대로 결승꼴이였다.

꼴이 터지자 판중석에서 요란한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후 경기는 완전히 북의 판이였다.

남조선언론들은 북이 세계력기계를 뒤흔들고있다고 격찬하였다.

《련합뉴스》는 우리 력기선수들이 세계신기록을 련이어 세우며 금메달을 쟁취한데 대해 크게 보도하였다.

이번 경기대회 첫 사흘간 벌어진 경기에서 벌써 여러개의 세계신기록이 세워졌는데 이를 주도하는 주인공은 단연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북의 력기선수들이다고 전하였다.

엄청난 힘으로 세계신기록을 세운 김은국선수는 경기후 기자회견에서도 힘이 넘쳤다고 하면서 통신은 《김은국은 가슴을 가리키며 〈여러분이 보시는것처럼 내 가슴에는 공화국기가 있다.〉고 자긍심을 드러내면서 〈김정은원수님의 사랑과 배려에 힘을 얻어 좋은 기록을 세웠다.〉고 웨쳤다.》라고 강조하였다.

《KBS》방송은 런던올림픽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던 엄윤철이 이번에 기대했던대로 최강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보도하였다.

《경향신문》은 엄윤철, 김은국선수들에 이어 22일에 진행된 녀자력기 58kg급경기에 출전한 리정화선수가 추켜올리기에서 압도적인 우세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북의 신진선수 리정화는 국제무대에 이름이 그리 알려지지 않은 선수이다. 그는 경기가 끝난 뒤 《배짱으로 무조건 이길것이라 믿었다.》며 활짝 웃었다.

북은 명실상부한 력기강국으로 자리잡았다.

미국의 VOA방송은 조선이 련속 금메달을 쟁취한데 대해 남조선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있으며 조선팀이 출전하는 경기들에 대한 입장권이 모두 팔리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남조선의 웰싸이트 《뉴스1》은 24일에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체조 녀자조마운동에서 영예의 1위를 쟁취한 홍은정선수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이 저의 기쁨입니다.》라고 피력한데 대해 특별히 강조하였다.

《KBS》방송은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북선수들은 다른 나라 선수들과 각국 취재진들이 대거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우리 선수들의 련이은 승전소식에

각 계 층 인 민 들 격 정 을 토 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룩하고있는 승리의 소식은 온 나라 인민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29일에 있은 녀자축구 준결승경기에서 남조선팀을 2:1로 타승한것을 비롯하여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의 미더운 선수들은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선군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뚜렷이 과시하고있다.

경기대회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여 세계기록들을 련이어 돌파하면서 예상을 뒤집는 성과를 이룩해가는 우리 체육선수들의 승전소식은 선군조선의 또 하나의 경사로서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압살책동을 짓부시며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노도쳐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체육성안의 일군들과 감독, 선수들은 련일 전해지는 우리 선수들의 우승소식을 들으며 하루빨리 그들을 얼싸안고 저 하늘 높이 힘껏 추켜올리고싶은 심정이라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람홍색공화국기를 우러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승리의 첫 보고를 올리는 엄윤철, 김은국선수들의 모습에서 주체조선의 체육인된 긍지를 가슴뿌듯이 새겨안았다.

우승의 영예를 떨친 우리 선수들이 한결같이 말한것처럼 오늘의 이 승리는 체육강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은정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체육강국의 목표는 머지않은 앞날에 반드시 실현될것이라는 확신이 온몸에 차넘친다.

력기, 체조, 사격, 레스링 등 여러 종목의 경기들에서 남녘땅을 들었다놓는 우리 선수들의 경기소식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전력, 석탄공업부문 로동계급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일터와 가정들에서 우리 선수들의 경기성과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흥겨움게 일손을 다그치는 로동계급의 기쁨은 끝이 없다.

승리의 금메달과 더불어 울리는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은 로동계급의 심장마다에 새로운 생산적앙양으로 어머니당을 받들어 줄것을 바라는 우리 선수들의 간절한 부탁으로 새겨지고있다.

우리 로동계급은 주체조선의 존엄을 걸고 승리의 개가를 올린 체육인들과 함께 경기장을 달리는 심정으로 전력, 석탄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올리겠다는 결의로 화답하고있다.

가을걷이전투가 한창인 지금 우리 체육선수들이 금메달을 쟁취하고있는 소식은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사리원시 대성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을 비롯한 농업근로자들의 사기를 한층 북돋아주고있다.

그들은 온 나라에 대혁신, 대비약의 기상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게 하는 체육인들처럼 열렬한 조국애를 안고 고향땅을 인민의 리상촌으로 아름답게 꽃피우며 알곡더미를 높이 쌓아나갈 열의에 넘쳐있다.

국가과학원안의 과학자, 기술자들도 영예의 금메달로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맨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장하다, 이들이야말로 비약하는 우리 시대의 정신을 지닌 애국자들이다, 그들처럼 우리도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가겠다고 말하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로동계급들은 흥분된 심정을 저저마다 토로하였다.

금메달을 쟁취한 홍은정, 리정화, 김은주선수들, 축구경기들마다에서 결정적인 득점을 하고있는 허은별선수와 같이 승전의 소식을 조국인민들에게 안겨준 녀성체육인들을 꼭 껴안아주고싶다.

지칠줄 모르는 청춘의 열정을 안고 조국을 받들어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 당을 위해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있다.

천만의 심장을 최후승리의 진군길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그들의 정신력을 따라배워 더 많은 천을 생산하는데 모든 힘과 지혜를 바쳐나가겠다.

우리의 체육명수들에게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녀맹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은 얼마나 미덥고 믿음직한 우리의 선수들인가, 우리의 아들딸들을 훌륭히 키워 오늘처럼 내세워준 어머니당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선수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련 일 성 과 달 성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 나라 선수들이 훌륭한 성과들을 련일 이룩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우리 선수들은 현재 력기, 체조, 사격, 레스링 등 여러 종목의 경기들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8개를 비롯한 많은 메달들을 쟁취함으로써 출전종목수에 비한 나라별메달획득순위에서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남자력기 56kg급경기에 나선 엄윤철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128kg, 추켜올리기에서 자기 몸무게의 3배가 넘는 170kg을 손쉽게 들어올림으로써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여 어머니조국에 첫 금메달을 안아왔다.

김은국선수는 남자력기 62kg급경기에 출전하여 끌어올리기에서 아시아경기대회기록과 아시아기록, 세계기록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경기대회에서 세운 기록인 종합 327kg을 328kg, 332kg으로 두차례나 갱신하여 력기계를 놀래웠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주체적인 경기전법과 기술을 꾸준히 련마해온 김은주선수는 녀자력기 75kg급경기 추켜올리기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고 종합 292kg으로 아시아경기대회기록을 갱신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리정화선수는 녀자력기 58kg급경기에서 맞다든 선수들을 가볍게 물리치고 우승의 단상에 올랐다.

남녘의 하늘가에 존엄높은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리고 선군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선수들속에는 남자자유형레스링 57kg급경기, 남자개인 10m이동목표혼합사격경기, 체조 녀자조마운동, 평균대운동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정학진, 김지성, 홍은정, 김은향선수들도 있다.

또한 우리 녀자기계체조선수들은 단체경기에서, 사격선수들은 남자단체 10m이동목표사격경기와 남자단체 10m이동목표혼합사격경기에서, 김명혁선수는 남자력기 69kg급경기에서, 조영철선수는 남자개인 10m이동목표사격경기에서, 김광성선수는 남자력기 77kg급경기에서, 려은희선수는 녀자력기 69kg급경기에서, 설경선수는 녀자유술 78kg급경기에서 각각 2위를 하여 은메달을 받았다.

한편 수중체조무용 집체자유선택경기, 녀자단체 유술경기, 날치기참호대사격경기에서, 홍국현, 김설미, 리효순선수들은 남자유술 73kg급경기, 녀자유술 48kg급, 57kg급경기에서, 조복향, 림정심선수들은 녀자력기 63kg급, 75kg급경기에서, 강영미선수는 체조 교저평행봉운동에서 각각 3위를 하였다.

우리의 미더운 남, 녀축구선수들도 필승의 신심에 넘쳐 조별련맹전에서부터 맞다드는 상대팀들을 보기 좋게 누르면서 우승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선군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인 우리 선수들의 자랑찬 승전소식은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고있는 군대와 인민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어머니조국의 인사를 받으시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우수성을 키워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의 미더운 체육인들이 일으키고있는 승전열풍, 금메달열풍이 온 나라를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설레이게 하고 어디서나 드세찬 체육열풍, 증산열풍, 대고조열풍을 더욱 가슴벅차게 일으키게 하고있다.

원길우 체육성 부상은 《우리 선수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며 우승의 시상대에 오른 장면들에 접할 때마다 눈물이 솟구치는것을 억제할수 없다. 오늘의 련이은 승리는 우리 체육인들모두가 당의 믿음과 사랑을 심장깊이 새기고 훈련의 나날에 완강하게 다지고다진 정신육체적, 기술전술적우월성이 안아온 선군조선의 자랑찬 승리이다.》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우리 선수들의 승전소식들은 지금 온 나라 인민의 체육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고, 그것은 머지않아 열리게 되는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에서 남김없이 발휘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동대원구역 문신소학교 교장 류선희는 온 학교가 들끓고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흥분을 이렇게 터놓았다.

《우리 선수들의 금메달열풍은 학교교육자들속에서도 레년에 더욱 가슴벅차게 일으키고있다. 지난 일요일에 진행된 구역적인 소학교교원체육경기에서 우리 학교가 단연 종합 1등을 쟁취하였다.》

그는 지금 학교교직원들의 기세는 하늘에 닿았다고 하면서 이 기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떨쳐갈 확신을 표명하였다.

인포탄광 3갱 갱장 로력영웅 우원용은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하나의 승리의 소식들은 그대로 우리 갱의 증산의 밑거름으로 되였다. 우리 온 집단도 체육인들과 함께 조국을 빛내이는 경기장을 달리는 심정으로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여 높이 세워진 9월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누리에 빛내이며 우리 탄부들에게 비약의 열기를 북돋아준 체육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조국은 이렇게 끓고있다.

내 나라의 자랑, 미더운 승리자들이여, 어머니조국의 축하의 인사를 받으시라.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고조진군에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며, 최후의 승리에로 줄기차게 나아가는 조국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며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앞으로!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오철룡

《우리 선수들이 이겼다.》 —압록강체육단에서—

올해 감자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불바람 인다

백두삼천리벌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 기본열쇠는 과학농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열쇠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대홍단군이 올해 감자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 확고히 돌파할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이러한 성과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민 결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감자농사는 대홍단군에서처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대홍단군에서는 선진영농기술과 방법, 좋은 농사경험들을 적극 받아들여 감자농사에서 다시한번 혁신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켰다.

—농업에서 증산의 예비는 현대농업발전추세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혁신하는데 있다. 당에서 바라는대로 감자농사의 본보기고장인 우리 대홍단이 과학농사에서 다시한번 비약하자.

이런 결의로 충만된 군의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러 단위들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는데 힘을 넣었다.

올해 군에서는 감자종자싹틔우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 품을 넣었다.

야외에서 직사광선을 받으면 감자종자는 싹트기가 억제되지만 실내에서는 싹눈이 빨리 그리고 많이 돋아나게 된다. 그러므로 군에서는 모든 농장들에서 온실을 리용하여 감자종자싹틔우기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온도가 높고 차광막이 설치된 온실에서의 감자종자싹틔우기는 20일정도로서 지난 시기보다 훨씬 앞당겨졌다.

또한 농장들에서는 올해에 예견되는 기상조건을 충분히 알아보고 지난해에 비해 보름정도 앞당겨 감자종자를 심었다.

15일, 결코 적은 기일이 아니였다. 예상대로 올해 서리가 빨리 내릴것을 타산하고 감자종자 심는 날을 앞당긴것만큼 정보당 감자수확고는 올라갔다.

당정책대로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확립된 조건에서 돼지목장들에서 질좋은 물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한것도 정보당 감자수확고를 높일수 있게 한 중요한 비결이였다.

대홍단군5호농업경영위원회 일군들은 영농공정에 따르는 기술지도를 바로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올해에 예견되는 장마철 기상조건을 알아보고 감자종자를 묻는 깊이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후치질에 의한 북주기를 종전보다 2~3회 더 진행한 다음 감자밭이 물에 잠기는 일이 없도록 배수체계를 철저히 세웠다. 그리고 역병이 발생하지 않게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

결과 올해 역병이 발생할수 있는 자연기후적조건이 농후했지만 그런 포전은 하나도 없었다.

올해 감자농사에서 대홍단군이 잘한것은 온 군이 떨쳐나 서리피해를 막아 감자 정보당 수확고를 높인것이다.

올해 대홍단일대에 첫 서리는 추석날보다 일찍 내렸다. 례년에 비해 빨리 내린셈이였다.

서리통보를 받은 군의 책임일군들은 군당위원회와 군5호농업경영위원회, 군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을 농장들에 내려보내여 긴급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기들도 즉시 현지에 달려나갔다. 농장들에 내려간 일군들은 력량을 총동원하여 수확을 끝낸 포전들에서 밀짚과 보리짚을 모아놓고 불을 지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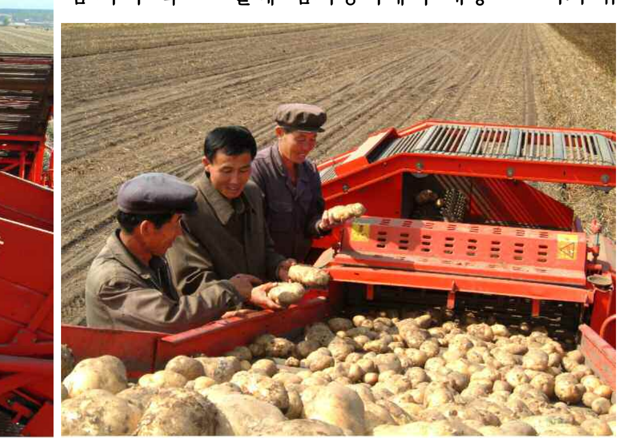
아직은 새벽어스름도 가셔지지 않은 이른새벽, 온 대홍단벌이 삽시에 대낮처럼 밝아졌다. 수백개나 되는 포전들마다에 삼단같은 불길이 타래쳐올랐다.

기가 꺾인 서리는 감히 감자포전들을 엄습하지 못하였다.

이런 전투는 련 3회나 거듭되였다.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일수 있는 근본열쇠는 과학농사!

올해 대홍단군의 감자농사가 그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경쟁바람

대홍단군 홍암농장 제4작업반 포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협동농장안에서도 전형작업반, 전형분조를 창조하고 작업반과 분조들이 그 단위를 따라잡기 위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대홍단군 홍암농장 제4작업반 포전이다.

감자줄기자르는기계를 앞에 단 뜨락또르가 기운차게 달린다. 그뒤를 따라 조향륜을 억세게 틀어잡은 운전수 김영철동무의 마력수높은 뜨락또르가 감자수확기를 뒤에 달고 우렁찬 동음을 울리며 발고랑을 타고나간다.

감자수확기는 어느덧 아득한 포전 한끝에 닿는다. 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가 재빨리 적재함을 수확기곁에 가져다댄다. 감자수확기의 이송벨트를 타고 감자알들이 자동차적재함에 쏟아진다.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작업반장 박룡철동무가 손나팔을 해가며 운전사에게 소리쳐 묻는다.

《몇탕째요?》

《다섯탕짼니다.》

호기에 넘친 운전사의 대답이다.

《그러면 50t은 실히 날랐겠구만. 이제 두탕 더 할수 있겠소?》

《예, 문제없습니다.》

잠시후 대홍단감자가공공장을 향하여 감자를 만적재한 자동차가 떠나기 바쁘게 또 한대의 자동차가 포전에 들어선다.

박룡철동무가 다급히 작업반원들에게 호소한다.

《다그칩시다. 이러다간 우리가 감자수송대한테 지겠소.》

그 말에 누군가가 큰소리를 친다.

《지긴 왜 진다는겁니까. 반장동무도 토끼와 거부기의 경기를 알지요.》

그 말에 온 들판이 떠나갈듯 폭소가 터졌다.

창밖으로 팔을 내민 자동차운전사가 그를 향해 주먹을 흔들어보인다.

그러거나말거나 작업반원들은 잽싸게 일손을 다그친다.

대홍단군이 자랑하는 혁신자들

—대홍단군 창평농장 제5작업반 뜨락또르운전수 엄동운동무는 이름난 혁신자이다.

풍요한 이 가을 뜨락또르뒤에 감자수확기를 달고 달릴 때면 그의 가슴속에는 대홍단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가꾸어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이 차넘치군 한다.

그래서 일을 하고 또 해도 힘든줄 모르겠다는 엄동운동무이다.

—대홍단군감자수송대 2555호자동차 운전사 백금석동무는 감자수송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그는 늘 아침일찍 차정비를 끝내고 자동차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감자수송실적을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감자포전에서부터 대홍단감자가공공장까지 하루에 5회, 그가 매일 실어나르는 감자량은 수십t에 달한다.

—대홍단군감자수송대 수리중대 중대장 한영민동무는 언제나 말없이 자동차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감자수확을 앞두고 그는 20여대의 자동차대수리를 말끔히 끝냄으로써 감자수송대 출동식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는 수송실적을 높이기 위해 운전사들의 차정비를 적극 도와주고있다.

—대홍단감자가공공장 로동자 최련희동무는 소문난 혁신자이다.

그는 청춘의 패기와 열정에 넘쳐 언제나 생산돌격의 앞장에 서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분담생산을 맡은 모든 동무들이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기대관리를 알뜰히 하며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는 집단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철주

엄동운동무

백금석동무

한영민동무

최련희동무

정을 주는것만큼 정신력이 폭발된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 황해남도려단 지휘관들의 사업에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 황해남도려단이 계속 기세좋게 내달리며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9월말현재 려단이 맡은 총공사량의 80%계선을 확고히 돌파하였다.

성과의 비결은 여러가지로 찾아볼수 있다. 공사장을 들었다놓는 화선식정치사업, 지휘관들의 진취적인 일본새와 능숙한 조직적수완, 긴밀한 당, 행정배합작전…

그와 함께 또 하나의 주목되는 점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눈보라가 사납게 울부짖던 지난 2월 어느날 밤이였다.

려단지휘부로 뻗은 길로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이 있었다.

《려단장동무, 내 사업에 빈구석이 많은것 같소.》

《정치부장동무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나도 가책되는바가 큽니다.》

정치부장 안영구동무와 려단장 김석철동무가 깊은 자책감에 잠기게 된것은 방금전 자갈채취장에서 만났던 한 처녀돌격대원때문이였다.

체소하고 나이도 어리지만 남자들 못지 않게 걸싸게 일을 제끼는 강령군대대 최철순동무를 늘 대견히 여기던 정치부장은 새 장갑을 그에게 끼워주려다가 저도모르게 흠칫 놀랐다. 처녀의 손이 몹시 텄던것이다.

문득 그가 일찌기 부모를 잃었다는 사실이 돌이켜져 더욱 가슴이 아팠다. 지금껏 돌격대원들을 위해 힘껏 노력해왔다고 내심 자부해오던 정치부장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 사연을 듣고난 려단장 역시 같은 심정이였다.

그후 돌격대원들에 대한 려단지휘관들의 관심은 보다 각별해졌다.

손이 험하게 텄는데 자기 전에 크림을 쭉쭉 바르라고 당부하며 고급화장품을 안겨주는 정치부장의 진정에 최철순동무는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려단지휘관들은 매일 공사진척정형과 함께 돌격대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도 빠짐없이 보고받는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주사업총화때마다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고있는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소행자료들을 통보하여 지휘관들을 계발시키였다.

정치부장은 지휘관들에게 늘 강조하였다.

당의 뜻을 꽃피울 일념을 안고 정든 고향집을 떠나 외진 산골의 발전소건설장에서 청춘을 바쳐가는 돌격대원들에게 있어서 제일 그리운것이 무엇이겠는가, 사랑이고 정이다, 누구나 지휘관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되자고 뜨겁게 호소하군 하였다.

정치부장이 바쁜 출장길에서도 돌격대원들의 집에 들려 생활상애로를 풀어준 사실은 대중에게 큰 힘이 되였다.

안악군대대의 손수련동무가 제대군인, 당원답게 대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도록 떠밀어주며 성의껏 마련한 생활필수품도 안겨주는 려단장의 모습도 돌격대원들을 감동시켰다.

려단지휘관들의 실천적모범은 대대지휘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배천군대대 대대장 신혁철동무는 한 돌격대원이 제대로 운신하지 못하는 아버지때문에 걱정하고있다는것을 알고 가정에서 마련한 생활필수품을 그의 집에 보내주었다.

고마운 지휘관들에 대한 뜨거운 추억은 송화군대대 강철남동무에게도, 신천군대대 최명화동무에게도 간직되여있다.

지휘관들이 돌격대원들에게 정을 쏟은것만큼, 사랑을 바친것만큼 집단의 화목과 단합이 굳건해졌으며 전투력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공사실적이 부쩍 높아지게 되였다.

황해남도려단 지휘관들의 사업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역시 사람과의 사업을 어머니심정으로 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된다.

본사기자 김순영

년간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

함흥건재공장에서

함흥건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년간계획을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돌격전을 힘차게 들이대여 지난 9월초까지 년간계획을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대오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지배인, 초급당비서, 기사장이 3위1체가 되여 긴밀히 협조하면서 자기 위치에서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로동자들의 후방사업과 문화정서생활에 큰 힘을 넣어 온 공장이 혁명적랑만과 전투적분위기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였다.

기사장 황철동무를 비롯한 참모부의 일군들은 원료,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설비관리, 기술관리,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드는것과 함께 공정간 련계를 긴밀히 하여 생산정상화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일군들은 화물자동차들을 제때에 보수정비하고 그 가동률을 높여 원료와 자재보장을 확고히 앞세워나갔다. 이와 함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설비들을 보다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원단위소비기준을 극력 낮추면서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설비관리를 맡은 일군들과 기술자들, 공무작업반과 건재1작업반의 로동자들은 합리적인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분쇄설비의 장입장치와 안붙임의 개조를 짧은 기간에 해제낌으로써 설비의 수명을 늘이고 세멘트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줄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운수작업반의 운전사들은 매달, 매 분기 자기들앞에 맡겨진 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건재1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깐지게 하고 작업준비를 빈틈없이 하여 생산에서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년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갔다.

건재2작업반원들도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매달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세멘트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운수작업반의 운전사들도 매일 맡겨진 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으로 간직하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년간 세멘트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오스트리아국제문제연구쎈터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8일 프란씨스 마우트너-마르크호프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오스트리아국제문제연구쎈터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몽골 국가대회의대표단 여러곳 참관

르.곤치그도르쥐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국가대회의대표단이 29일 평양산원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속에 녀성들의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평양산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곳을 돌아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평양산원이 매우 웅장하고 훌륭하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정성을 바쳐가는 의사와 간호원들의 진심어린 모습들이 인상적이다.

산원에서 태여난 어린이들이 앞으로 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해 적극 이바지해나가는 인재들로 자라나기를 바란다.

그들은 또한 옥류아동병원, 고려의학과학원을 비롯하여 평양과 지방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몽골 국가대회의대표단 평양산원 참관

일조우호녀성대표단 귀국

야마무라 치즈에를 단장으로 하는 일조우호녀성대표단이 29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윤이상음악연구소창립 30돐기념

음악연구토론회 진행

윤이상음악연구소창립 30돐기념 음악연구토론회가 2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한철 문화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 중앙예술단체 창작가, 예술인들, 예술교육부문 교원, 연구사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윤이상의 애국애족적인 음악창작활동에 대하여》, 《윤이상의 음악창작단계와 그 특징》, 《윤이상의 협주곡창작의 주요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윤이상음악연구소 부장 리창길, 연구사들인 리석훈, 리선영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윤이상선생이 창작한 음악작품들과 력사적인 사실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세계적인 작곡가, 재능있는 음악가로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그의 음악창작활동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선생의 작품들에 구현된 민족애의 정신과 세계음악계의 이목을 끄는 독특한 작곡, 연주기법 등을 과학리론적으로 해설하였다.

세계적인 판도에서 조선의 민족정신을 구가하고 의로운 음악창작활동을 벌려온 윤이상선생의 한생은 수많은 음악작품들과 더불어 겨레의 기억속에 길이 남아있을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토론회는 조국통일과 세계음악사에 기여한 윤이상선생의 창조적성과와 경험의 우수한 특성들을 과학적으로 정립, 체계화하고 그의 애국애족적인 음악세계에 대한 리해를 깊이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몽골 사회민주녀성동맹대표단 귀국

쯔.초그졸마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사회민주녀성동맹대표단이 29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채춘희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주조 몽골대사관 성원이 전송하였다.

고구려 광개토왕릉비건립 1 600돐기념

사회과학부문토론회 진행

고구려 광개토왕릉비건립 1 600돐기념 사회과학부문토론회가 29일에 진행되였다.

과학, 교육, 민족유산보호, 출판보도부문 교원, 연구사, 강사, 기자, 편집원들과 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우리 인민들은 물론 세계인민들속에도 널리 알려진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인 광개토왕릉비의 력사적의의와 고구려의 강대성에 대한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고구려는 넓은 령토와 발전된 문화를 가진 강대한 나라였으며 고구려인민들은 매우 용감하고 애국심이 강하였습니다. 고구려의 강대성과 높은 문화수준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입니다.》

토론회에서는 《광개토왕릉비건립이 가지는 문화사적의의》라는 제목으로 사회과학원 소장 박사 부교수 손수호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고구려의 령토를 크게 넓히고 나라의 위용을 높이 떨친 고구려의 24대왕인 광개토왕의 공적을 찬양하여 지금으로부터 1 600년전인 414년에 건립된 광개토왕릉비의 문화사적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그 의의는 첫째로, 우리 선조들의 손으로 정확히 기록하여 후세에 전한 가장 오래된 릉비로서 고구려의 건국과정과 력대왕들의 계승관계, 국토통일지향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있다는데 있다.

둘째로, 고구려인민들의 창조적노력에 의하여 축조된 모든 건축물들이 다 그러하듯이 광개토왕릉비도 고구려건축문화의 독특한 풍격을 대표하는 기념비적석조건축물이라는데 있다.

셋째로, 고구려의 강대성과 위용을 만방에 과시하는 비문내용과 함께 형식이 웅장하고 독특할뿐아니라 예술적형상이 풍부하고 우수한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서예유산으로 되고있다는데 있다.

넷째로,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크고 오랜 비석으로서 세계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였다는데 있다.

참으로 광개토왕릉비는 내외에 많은 력사적사실들을 알려주고 웅장한 규모와 세련된 석조가공 및 축조술, 힘있는 필치로 하여 우리 나라와 세계고고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적재보이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 부국장 로철수는 《광개토왕릉비문의 사료적가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광개토왕릉비문은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서 매우 귀중한 사료적가치를 가지는 민족문화유산의 하나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릉비문에는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이 나라를 세운 경위와 그후 력대 왕들의 계승관계, 광개토왕의 공적, 왕릉의 관리와 수호를 위한 수묘인연호(왕릉이나 특정한 대신들의 무덤을 지키는 무덤지기들의 살림집)의 구성과 그것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적규정 등이 서술되여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삼국사기》를 비롯한 력사기록들에는 없거나 기록되여있는 경우에도 잘못 서술되였고 소략하게 씌여진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전해주고있는것으로 하여 고구려의 력사를 정확히 리해하고 체계화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사료로 되고있다.

또한 비문의 서체는 방정하고 힘있는 자형과 필법으로 고구려사람들의 고상한 정서와 억센 기상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고구려의 서체를 연구하는데서도 대표적인 자료로 리용되고있다.

《광개토왕시기 고구려의 강대한 국력》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사회과학원 소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조희승은 당시 고구려가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강대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릉비문의 내용을 통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광개토왕시기 고구려는 동방의 많은 나라 및 종족들과 이러저러한 관계를 가졌다. 그가운데서 대부분이 고구려의 징벌대상, 보호대상이였다는 사실은 이 시기 고구려가 동아시아에서 군사강국으로서 높은 국력을 떨치였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고구려의 높은 국력은 또한 당시 고구려사람들이 고구려를 그 어느 나라에도 견줄수 없는 강대국으로 여기고있은데서 찾아볼수 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바와 같이 고구려의 건국시조인 동명왕을 성스러운 황제임을 뜻하는 《동명성제》로 불렀으며 이러한 관념은 광개토왕시기에 와서도 변함이 없었으며 더욱 강렬해졌다.

이 시기 고구려는 경제문화분야에서도 다방면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선진문명국의 위세를 높이 떨치였다.

고구려가 여러 방면에서 령역확장을 본격적으로 벌리고있던 실정에서 대국의 체모에 맞는 웅장화려한 수도를 건설한것은 물질기술적토대와 경제적위력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립증해준다.

광개토왕릉비만 놓고보더라도 그자체는 광개토왕이 죽은지 2년후에 건립된것이지만 그것은 이전 시기의 높은 문화수준을 반영한것이므로 광개토왕시기의 문화유산이라고도 볼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 박사 부교수 전동철은 《광개토왕릉비에 반영된 고구려의 삼국통일지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광개토왕시기의 대외정벌은 주로 남쪽방면 즉 백제와 신라, 가야를 대상으로 진행되였다.

당시 고구려는 서북변방에 자주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던 외래침략자들을 징벌하여 나라의 북방정세를 안정시키고 삼국통일정책을 추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특히 광개토왕은 직접 수군을 거느리고 징벌작전을 단행하여 백제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백제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였다.

그후 고구려는 대군을 파견하여 신라땅에 침입한 백제, 가야, 왜의 련합세력에 큰 타격을 주고 자기의 위력을 다시한번 널리 과시하였다.

이처럼 고구려는 삼국시기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고 당시의 정세를 주도한 강대한 나라였으며 삼국통일지향을 가지고 완강하게 내밀어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 인민이 창조한 우수한 문화유산들을 더 많이 발굴고증함으로써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더욱 빛내여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권은 미국의 롱락물이 될수 없다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가 중요한 론의거리로 되고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론의되고있으며 그것을 둘러싼 론쟁이 격화되여 나라들사이의 관계문제로까지 번져지고있다. 원인은 인권론의에서 공정성이 심히 결여되고 불공정한 국제질서가 인권분야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기때문이다. 그 책임의 당사자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이다. 그들은 저들의 한심한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입밖에 내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있지도 않는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들고 삿대질을 해대며 저들의 《인권기준》을 받아들일것을 강요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참다운 인권을 누리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우롱이며 도전이다.

지금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벌어지는 인권론의에서는 주권국가에 대한 비법적인 무력침공과 정권전복행위, 민간인학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들은 론의대상밖으로 되고있으며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기 식의 제도와 민족적리익을 고수하고있는 나라들은 《인권유린국》으로 문제시되고있다. 강자의 범죄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것으로 미화되고 그를 막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은 《인권유린범죄》로 되는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세계는 나라들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초래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권취급 방식에 경종을 울리고있다.

국제적인 인권론의에서 오늘과 같은 사태를 몰아온 기본주모자는 미국이다. 미국은 유엔에서 차지하고있는 특수한 지위를 리용하여 추종세력들까지 동원하면서 《인권문제》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고있다.

세계를 제패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인권문제》이다.

미국은 마치도 《인권재판관》이라도 된것처럼 해마다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며 다른 나라들에 이래라저래라 훈시질을 하고있다.

미국이 그 누구보다도 《인권》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대는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주권침해, 정부전복행위를 합리화하자는것이다. 《인권문제》를 구실로 반미자주적인 나라들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 저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을 거꾸러뜨리고 이 나라들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자는것이 미국의 전략적기도이다. 그를 위해 미국은 이 나라들의 영상을 흐리게 하여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한편 각종 음모와 모략, 내정간섭을 통하여 해당 정부에 대한 불만과 사회적혼란을 조장시키고있다. 그리고는 그 나라들에 심각한 《인권문제》가 있다고 떠들며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행위를 뻐젓이 감행하고있다.

미국의 내정간섭의 촉수는 국가정치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뻗치고있다. 미국은 해당 나라들의 정치, 경제, 문화정책 등을 시비하면서 사상정치분야에서의 《자유화》, 경제분야에서 시장경제에로의 개혁을 강요하고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인권》을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코코에 개입하고 삿대질을 해댈수 있는 무기로 삼고있다.

미국이 떠드는 《인권》은 결코 해당 나라 인민들을 위한것이 아니다. 미국이 해당 나라들이 반미적인가, 친미적인가에 따라 《인권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서 인권이 보장되고있다고 해도 반미적이면 《인권이 유린되고있다. 》고 하고 친미적이면 《인권보호국》으로 둔갑시키고있다.

미국은 《인권》을 구실로 반미적인 나라들의 사회제도를 변경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이 나라들에 저들에게 순종하는 정권을 조작하기 위해 반동분자들을 부추겨 사회적혼란과 무질서를 조성하고는 그것을 반대하는데 대해서는 《인권유린》이니, 《민주주의후퇴》니 뭐니 하며 압력을 가하고있다.

미국은 중동과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 이러한 방법을 써먹었다. 최근시기 미국은 유럽의 한 나라에서 《색갈혁명》을 조작하여 사회적혼란을 일으키고 나라의 분렬과 민족 및 정치세력들사이의 충돌을 몰아왔다. 그리고는 이 나라의 내정에 개입하고 친미적인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실례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구실로 감행하는 제도변경시도의 전형적인 표현은 우리를 겨냥한 《인권법》채택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촉진시킨다는 미명하에 제도변경이나 정부전복에로 유도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그 실현에 해마다 숱한 자금을 할당하고있다. 우리의 제도붕괴를 목표로 한 미국의 《인권》소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최근에는 우리의 인권실태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표현까지 써가며 그것을 종식시키는것이 최종목표라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어떤 제도와 정부를 수립하는가 하는것은 철저히 해당 나라 인민자신이 결정할 문제이며 이것은 그 나라 인민들의 자주적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권문제》를 구실로 제도변경을 강요하고있는것은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파렴치한 내정간섭이다. 이것은 미국이 벌리는 《인권》소동이 철저히 저들이 판을 치는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한데 목적을 둔 정부전복행위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인권》소동은 침략과 전쟁을 동반한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미국은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그릇되게 문제시하다가 기회가 조성되면 《인권보장》을 구실로 무력을 들이밀어 합법적인 주권국가를 전복하는 수법을 쓰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이 감행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침공도 《테로를 반대》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공공연히 진행되였다. 1980년대 그레네이더와 빠나마에 대한 무력침공, 1990년대 당시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도 다 《인권보호》의 간판밑에 감행된것들이다. 미국이 떠드는 《인권》소동이 종당에는 피비린내나는 전쟁, 군사적간섭으로 이어진다는것은 법칙으로 되고있다. 지금 미국은 이전에 《인권문제》를 걸고 써먹던 침략전쟁수법을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하여 저들의 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그 주되는 목표는 우리 나라이다. 우리 공화국이 날로 장성강화되는데 겁을 먹은 미국은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제압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교묘하게 리용하고있다. 그들은 자기 고향을 버리고 조국을 배반한 인간쓰레기들까지 끌어들여 우리의 《인권상황》을 날조하고 그것을 범죄시하면서 국제적인 여론을 확대시키고있다. 지어 그들은 인도주의적인 문제까지 《인권문제》와 결부시키며 정치적흥정물로 삼고있다. 그들은 우리가 인도주의협조를 받으려면 《인권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고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것은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정치화하여 그것을 구실로 압력을 가하며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인권문제》를 럭대고 군사적힘을 동원하자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감행되는 미국의 《인권》소동은 명백히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주권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한 공공연한 국제법유린행위이다. 미국의 《인권》소동이 국제사회를 분렬시키고 대결과 전쟁만을 초래하는 화근이라는것은 론박할 여지가 없다. 오늘의 현실에서 국제적으로 진정한 인권론의가 진행되자면 무엇보다먼저 미국이 《인권》의 탈을 쓰고 감행하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도전복행위를 당장 걷어치우고 진실한 자세에서 인권대화마당에 나서야 한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일치한 요구이다.

만일 미국이 이전과 같이 《인권문제》를 저들의 불순한 목적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전반적인 국제질서와 인권보호증진에 좋지 못한 후과만을 가져오게 된다.

인권문제에서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기준이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참다운 인권보호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국제적인 인권문제취급에서는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동맹국이건 아니건 같은 규정이 동등하게 적용되여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저들을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인권범인》의 감투를 씌우고 비방중상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저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나라들을 선택적으로 지명공격하며 압박을 가하고있다. 이것은 나라들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키고 세계적인 인권보호증진노력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일부 나라들이 인권문제취급에서 때와 장소에 따라 말과 행동을 달리하고 편견적인 반공화국대미추종정책을 실시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국제무대에서 이중기준을 더욱 조장시키는것으로 되고있다.

매개 나라들의 자주권이 존중되여야 한다. 자주권을 떠난 참다운 인권이란 있을수 없다.

모든 나라들이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나갈 때 미국의 《인권》소동이 맥을 추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나라들의 자주권이 고수되고 참다운 인권이 보장될수 있다.

인권문제론의에서 고의적인 현실외곡이나 지명공격, 군사적힘에 기초한 일부 나라들의 전횡을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인권보호증진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국제무대에서 평등과 민주주의가 보장되여 매개 나라들의 요구가 반영될 때 그것이 개별적나라들의 호응을 받을수 있다.

현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자기의 활동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권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영원한 롱락물로 될수 있다.

참다운 인권을 바라는 나라라면 인권을 저들의 불순한 목적실현에 써먹으려는 미국의 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발전시켜나갈것이다.

리 학 남

국 제 사 회 계 의 반 향

조선의 어린이들이 정말 부럽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속에 세상에 부럼없이 씩씩하게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넘친 모습에 국제사회계가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영국조선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이 세상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다.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긴축정책과 공공부문 예산삭감에 매달리고있지만 조선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확대하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자기의 재능을 더욱 활짝 꽃피울수 있는 보다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줄것이다. 이렇듯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는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에서만 취해질수 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맑고 푸른 조선동해의 기슭에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국제사회의 각별한 시선을 끄는것은 단지 그 황홀함때문만이 아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며 그들의 모든 꿈을 꽃피워주는 조선의 희한한 현실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있다. 그것은 첫째로, 야영소에 현대적으로 갖추어진 모든것이 야영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는것이다.

둘째로, 다른 나라들같으면 백만장자나 특권층의 자식들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못할 훌륭한 곳에 로동자, 농민, 탄부 등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식들 지어 부모없는 아이들이 가고있는것이다.

셋째로, 이 모든것이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로선과 정책의 구현이며 산물이라는것이다. 참으로 숭고한 후대사랑을 지니신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속에 훌륭히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의 천국이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빼루위원회 성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의 어린이들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후비대로 자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후대들에 대한 정치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아이들의 궁전으로 희한하게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조선의 어린이들이 행복속에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있다. 려객선침몰사고로 남조선을 아이들의 생지옥으로 만들어놓은 남조선당국이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아이들의 왕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시비하고있는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소롭고 역겨운 추태이다.

웰남의 인터네트통신 브이엔엑스프레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현대적인 아동의료봉사기지로 일떠선 옥류아동병원을 소개하면서 어린이들이 유능한 의사들과 깨끗한 병원, 무상치료의 혜택속에 치료를 받고있는것은 조선사회복리의 특징이라고 격찬하였다.

몽골태권도협회 터그쓰 에르조리그구락부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에서는 어린이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만을 누리며 씩씩하게 자라고있다. 자애로운 령도자의 깊은 관심과 옳바른 교육정책,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속에 자라나는 조선의 어린이들이 정말 부럽다. 김정은각하를 모시여 조선의 앞날은 창창하다.

【조선중앙통신】

나 이 제 리 아 인 사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 규탄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투가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을 규탄하여 18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날조된 견해들을 류포시키고있는데 대해 단죄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인민적인 제도이다.

국제무대에서 특정한 일부 나라가 저들의 가치관을 내려먹이면서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더는 허용되지 말아야 하며 지배주의세력의 전횡과 강권을 단합된 힘으로 짓부셔버려야 한다.

지 진

- 일본의 후꾸시마현에서 24일 리히터척도로 각각 5.5.2의 지진이 련속 발생하였다. 진원은 현앞바다 물밑 50km 되는 곳에 있었다.

- 대만의 대동현부근수역에서 25일 리히터척도로 5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원은 바다물밑 7km 되는 곳에 있었다.

- 이슬란드의 남부지역에서 23일 리히터척도로 5.1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원은 이 지역 땅속 5km 되는 곳에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필리핀의 다락밭

진보적인류가 우러르는 인민의 나라

여 러 나 라 신 문 , 방 송 이 특 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수리아의 텔레비죤 및 라지오방송과 신문들이 7일과 9일 특집하였다.

중앙TV방송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을 담은 영상들을 모시였다.

방송은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업적과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면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격찬하였다.

또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고 전진시켜오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 우리 공화국을 세계 진보적인류가 우러르는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업적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중앙라지오방송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방송하였다.

신문 《알 사우라》는 《승리와 영광의 66년을 맞는 조선》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오늘 조선은 승리와 영광의 66년을 맞이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만이 진정한 인민의 사회라는것을 깨달았으며 공화국정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있다. 조선은 지난 세기말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될 때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였다. 조선은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가지고있으며 자체로 인공지구위성을 제작발사하고있다.

신문 《알 바아스》는 《사회주의의 보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보루로 될수 있은것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기때문이다. 또한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기때문이다.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친선적인 조선인민이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반드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

* *

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우루파이, 네팔신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우루파이신문 《라 후벤뚜드》 9일부는 《김일성주석의 건국업적》, 《사회주의조선 인민의 나라》라는 제목의 글들을 옹근 한 면에 실었다. 신문은 조선인민이 김일성각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그이의 건국업적이 거대하기때문이라고 하면서 건국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고 인민정권을 사회주의의위업수행의 위력한 무기로 발전시키신 절세위인의 업적을 상세히 전하였다.

신문은 강성번영하는 조선의 모습은 인민을 위한 고생을 달게 여기시며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김정일령도자와 김정은령도자의 애국헌신이 안아온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인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떠받들려 룡성번영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판》 5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이라는 제목으로 백두산절세위인의 조국해방업적과 전승업적, 건국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전기간 수많은 불후의 저서들을 집필하시였으며 정책의 구현이며 산물이라는것이다. 참으로 숭고한 후대사랑을 지니신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속에 훌륭히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의 천국이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빼루위원회 성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의 어린이들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후비대로 자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후대들에 대한 정치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아이들의 궁전으로 희한하게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조선의 어린이들이 행복속에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있다. 려객선침몰사고로 남조선을 아이들의 생지옥으로 만들어놓은 남조선당국이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아이들의 왕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시비하고있는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소롭고 역겨운 추태이다.

웰남의 인터네트통신 브이엔엑스프레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현대적인 아동의료봉사기지로 일떠선 옥류아동병원을 소개하면서 어린이들이 유능한 의사들과 깨끗한 병원, 무상치료의 혜택속에 치료를 받고있는것은 조선사회복리의 특징이라고 격찬하였다.

몽골태권도협회 터그쓰 에르조리그구락부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에서는 어린이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만을 누리며 씩씩하게 자라고있다. 자애로운 령도자의 깊은 관심과 옳바른 교육정책,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속에 자라나는 조선의 어린이들이 정말 부럽다. 김정은각하를 모시여 조선의 앞날은 창창하다.

【조선중앙통신】

월 간 국 제 정 세 개 관

만천하에 드러난 전쟁광신자들의 정체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속에서 흘러간 9월에도 국제무대에서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심각한 사태들이 련이어 발생하여 정세가 매우 불안하고 긴장하였다.

가장 주목되는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파괴의 주되는 장본인으로서의 미국의 정체가 다시한번 똑똑히 드러난것이다.

지난 3일 미집권자는 이슬람교국가(순니파반란세력)를 이라크뿐아니라 중동과 미국에 더이상 위협이 되지 않도록 박멸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또한 그는 발뜨해주변 나라들과 동유럽나라들의 안전보장을 베를린이나 빠리의 안전보장만큼 중요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지역에 나토의 집단안전보장원칙을 적용할것이라고 목청을 돋구었다. 그런가하면 미국무장관은 우리 나라와 이라크, 리비아, 우크라이나, 가자지대, 남부수단 등과 관련한 문제들은 미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들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국제적지도력과 개입은 미국의 유전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고 허세를 부렸다. 이를 두고 분석가들은 오바마행정부가 가까스로 견지해온 국방예산축감과 군사적개입의 최소화 등의 기존정책을 뒤집고 폭력으로 세계의 곳곳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이 열점지역들에 대한 《제한적개입》에서 벗어나 《개입확대》에로 전환하고있다는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열점지역들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력》이 과연 세계에 평온을 가져올수 있는가.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정세만 놓고보자.

지난 9월 8일은 미국이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지 69년이 되는 날이였다. 이날을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의 남조선강점을 반대배격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느때없이 높이 울려나왔다.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조선민족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한 범죄의 력사였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반도에서의 새 전쟁발발의 근원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 미군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 세계가 이것을 요구하고있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데 대한 결의가 채택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도 여러가지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면서 남조선강점을 합리화, 영구화해보려 하고있다.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관한 회담이 진행되였다. 여기에서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다음해로 예정된 남조선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2020년이후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내세우고있는 미국에 있어서 조선반도는 주요발판으로, 판건적지대로 되고있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내들고 남조선을 영구강점하며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려 하고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현정세는 강력한 전쟁억제력에 기초하여 미국의 대조선침략책동을 물리칠것을 요구하고있다.

중동지역에서 전쟁발발의 위험이 점점 짙어가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이슬람교국가로 자처하는 세력이 이라크의 많은 부분과 그와 린접한 나라들에까지 거점을 확대하고 군사행동을 본격화하고있다. 그들의 공격목표는 저들에 대한 공중폭격을 하고있는 미국에로 집중되고있다. 지어 모든 장소들에서 미국인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였다. 실지 이달에 들어와서만도 두번째로 미국인을 처형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였다.

전문가들은 이슬람교국가의 행동은 중동의 넓은 지역에 순니파국가를 세우려는 자기들의 군사활동을 가로막아나서고있는 미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하고있다. 미국내에서는 벌써부터 제2의 9.11사건이 발생할수 있다는 불안이 짙게 떠돌고있다.

문제는 미국이 이 기회를 리용하여 중동지역에 대한 공개적인 군사적개입의 구실을 마련하려는것이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이슬람교국가를 추적할 때가 되였다고 하면서 국제련합군을 만들고 그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단행하겠다고 하였다. 마치도 10여년전 《반테로전》을 선포하고 이 나라, 저 나라에 일방적인 군사적공격을 들이대던 때를 그대로 방불케 한다.

미국이 벌려놓는 순니파반란세력에 대한 군사적공격의 진의도를 따지는 목소리들이 세계의 곳곳에서 울려나왔다. 세계여론들은 미국의 진짜목적은 또다시 주권국가들에 군사적공격을 강행하여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힘으로 지배하려는데 있다고 하고있다.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수리아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미국은 순니파반란세력을 타격한다는 명분을 세워 수리아내정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여기에 수리아반정부세력과 추종세력까지 끌어들여 이 나라를 전복하려 하고있다. 수리아에 대한 다국적무력의 대규모공습계획이 작성되여 이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 수리아의 반정부세력에 대한 자금과 무장장비제공 등이 공개적으로 론의되고있다.

수리아외무 및 이주민성 부상은 《반테로련합》을 형성하려는 미국과 서방의 부당한 처사를 배격하면서 만약 일부 나라들이 자국령토를 공격하는 경우 그것을 침략으로 간주할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이 확대하려 하고있는 《반테로전쟁》이 가까운 시일내에 세계의 곳곳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분쟁들을 일으키는 도화선으로 될수 있다.

미국이 《반테로》를 구실로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제거하고 자기만이 판을 치는 세계를 만들려는 범죄적목적은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사태를 둘러싸고 유럽정세가 여전히 팽팽한것도 주목되는 정세흐름의 하나였다.

사실 현 우크라이나사태의 장본인은 미국과 서방이다.

원래 분쟁세력들사이에 쐐기를 박고 그 틈을 리용하여 제배를 불리우는것은 미국의 파렴치한 수법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사태를 통해 노린것은 잠재적적수인 로씨야를 완전히 제압하자는것이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사태를 고의적으로 악화시켰고 유럽동맹과 로씨야사이의 모순을 극도로 첨예화시켰다. 로씨야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가혹한 경제제재와 그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한 로씨야의 대응에 의해 로씨야와 유럽사이의 경제무역관계는 엉망이 되였다. 미국은 바로 이것을 노렸다. 저들의 손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유럽동맹을 바싹 그러쥐고 나토를 동쪽으로 계속 확대하여 로씨야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포위하려 하고있다. 9월초에 진행된 나토수뇌자회의에서 우크라이나정부에 대한 군사적지원이 공공연히 선포되고 로씨야의 《위협》에 대비한 신속대응군 창설을 합의하는 정도에 이른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우크라이나위기를 리용하여 동유럽나라들에 나토군사기지들을 줄줄이 배비하고 이 지역에 든든히 발을 붙이려는 미국의 침략기도는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

9월의 정세흐름을 통하여 사람들은 다시한번 깨닫고있다.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며 세계에 전쟁과 죽음,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제국주의자들이라는것이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사람들은 언제 가도 편안하게 살수 없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대국들의 희생물이 되고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직 진정한 평화는 그 누구도 범접못하게 자기 힘을 키울 때에만 지켜진다는것을 9월의 국제정세는 보여주고있다.

전 영 희

빈궁과 실업위기 격화, 막대한 무역적자

▲ 미국에서 빈궁이 의연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적인 빈궁자수수는 4 530만명에 달하였다. 한편 미국에서 20일까지의 지난 1주일동안에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29만 3 000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1만여명 더 늘어난것이라 한다.

▲ 일본에서 편속 2년 2개월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있다. 18일 이 나라 재무성은 8월에 무역적자가 9 485억￥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국적인 수출액은 1.3% 줄어들었다.

여 러 나 라 에 서 자 연 피 해

- 뛰르끼예의 남부지역에서 25일 큰물피해가 났다.

폭우에 의한 큰물로 이날현재 2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여러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였다.

- 필리핀의 북부지역에서 최근 열대성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폭풍으로 21일현재 10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약 20만명이 긴급소개되였다.

피해자수는 84만 300여명에 달하였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10여곳에서 최근 산불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17일까지 5일동안 계속된 산불로 1만 1 331ha의 산림이 불타버렸다.

산불이 주민지대에로 번져 적어도 2 000채의 살림집이 위험에 처하였으며 수많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 파키스탄의 판쟙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큰물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20일현재 사망자수가 346명으로 늘어났으며 총 피해자수는 170만명이상에 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파 키 스 탄 에 서 큰 물 피 해

ㄱ-41152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